

건축문화 사랑

Vol.049 10. DECEMBER 2013
http://gjkira.kira.or.kr

건축과 도시
사람과 자연의 경계를 넘는
소통과 공유의 장!!

건축문화 **사랑** 을 스마트폰에서도
구독하실 수 있습니다.

오른쪽 QR 코드로 접속하신 후, 상단 '건축
문화사랑' 을 클릭하시고 홈페이지에서 월별
PDF파일을 다운로드하시면 구독 가능합니다.



광주 · 전남 · 전북 건축사회

News 2013. 12

049호

GWANGJU INSTITUTE OF REGISTERED ARCHITECTS
광주광역시 북구 무등로 255 T 062.521.0025 F 528.0026

광주광역시건축사회 연말 맞아
천혜경로원 봉사활동 나서



건축문화사랑 신문 선정
2013년 올 한해 건축계 News & issue



시론 02

감리공영제도의 참여와 공유 _ 이창율

송년기획 03

건축문화사랑 신문 선정, 2013년 올 한해 건축계 News & issue

작품소개 04-05

제14회 전라북도 건축문화상

동양건축 06

한·중·일 비교로 보는 건축미의 원천2_3부 >> 건축 속의 물 _ 이왕기

사람 & issue 07

전남 목포지역건축사회장 이경일 건축사와의 만남

특별기획 08

2013년 대한민국 공간문화대상 대통령상 수상
"광주광역시 주민과 함께 밝고 환하게 웃는 동네 만들기"

螢窓雪案 09

전남 동신대학교 건축공학과 손승광 교수와의 만남



제14회 전라북도 건축문화상

사용승인 대상 : 한국농어촌공사(상)
사용승인 공공부문 금상 : 부안 참뽕연구소(중)
사용승인 공공부문 은상 : IKSANT HOUSE(하)



인터뷰_ 사람 & issue
전남/원 건축사사무소 이경일 건축사



인터뷰_ 螢窓雪案
전남/동신대학교 건축공학과 손승광 교수

감리공영제도의 참여와 공유

— 사익보다 공익이 우선한다.



이창율 건축사
(주)지에이 건축사사무소
전, 대한건축사협회 부회장

건축은 국격을 높인다, 건축은 그 도시의 얼굴이다, 건축사는 그 도시의 가치를 높이는 건축문화의 창조자이며 조형창작예술가이다.

소규모 건축공사의 공정관리, 안전관리, 품질관리의 감리기준을 보완하고자 대한건축사협회에서는 이를 위한 TF팀을 구성하여 여러 해 동안 연구한 결과 “소규모건축물의 감리공영제도”를 도입하게 되었다.

이는 건축법과 건축법시행령 그리고 건축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축공사감리업무범위를 강화하여 수준 높은 건축물을 완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대규모건축물 및 사업승인대상건축물의 감리는 건기법에 따라 공종별로 감리전문기술자가 현장에 배치하여 감리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기대 할 만한 수준의 건축물이 생산 되어지고 있다.

그러나 건기법 대상 규모 미만인 소규모 건축물의 상주 및 일반감리업무는 대부분 부실하게 수행되어 왔다. 이로 인하여 현장조사 대행업무에 이르기까지 회원들간에 상호 반목과 갈등, 이에 따른 건축민원 등이 날로 심화되어지고 있다. 건축주와 시공자, 시공자와 감리자, 행정과 현장조사대행업무 건축사간에 법정 다툼까지 비화되어 제도적인 보완이 시급하게 되었다.

이제는 수준 높은 건축물의 완성을 위하여 소규모 건축물의 상주 및 일반감리업무의 부실감리를 사전에 예방해야 할 때 이다. 한 명의 건축사가 한 건축물의 전반적인 설계와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여러 건축사가 모여 브레인스토밍(Brain storming)을 통하여 부족한 아이디어 위에 더 좋은 아이디어를 덧붙여 질 높은 건축물을 생산해 내야 한다.

실시설계 전의 VE가치공법이나 LCC분석 등의 과정에서 여러 건축사가 참여하여 기획, 계획, 설계, 구매, 시공, 감리, 현장조사대행업무에 이르기까지 공동으로 전 과정을 수행할 때에 수준 높은 건축물이 생산되어지게 된다. 더 나아가 광주, 전남·북까지 건축감리업무를 공유할 때 이다. 산업화혁명, 도시화혁명, 40년 동안 광주·전남에서 72만명, 전북에서 61만명, 총 133만명이 타

시·도로 우리의 이웃들이 빠져 나갔다.

우리 건축사들의 모든 전문적인 지식을 결집하여 광주, 전남·북의 가치를 이끌어 올리자. 광주의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등, 전주의 한옥마을 등, 전남의 슬로우 시티 등, 세계적인 건축의 가치들을 벨트화하여 다시 모여드는 고을로 광주, 전남·북 다음의 도시로 만들어가자.

설계자는 디자인 의도를 감리자는 고도의 감리수행기법을 현장조사 대행업무건축사는 축적된 지식을 공사착공에서 사용검사시까지 이를 모두 결집하게 된다. 이제는 더 이상의 부실설계, 부실감리, 부실시공, 부실한 현장조사대행업무는 찾아 볼 수 없게 될 것이다.

매년 건기법에 의한 감리용역비 매출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설계용역비의 매출실적이다. 감리용역비에 비해 2배가 넘는 설계용역비의 매출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덩핑 수주로 우리건축사 스스로 소규모 건축물의 감리업무를 포기하여 온 결과이다. 이제는 우리 스스로 포기한 사회적 지위와 권위를 되찾아야 한다. 이는 전문직업인으로서의 경제적인 지위까지도 포함하고 있다. 이 지위를 모든 건축사가 함께 동참하여 공유 해야 한다.

국가는 우리건축사들에게 설계·감리업무시장을 관련법에서 제도적으로 보장 해 주고 있다. 우리는 더 이상의 경쟁자가 될 수 없다. 공동사업자로서 「한가족」이 되어야 한다. 사회가 보장해 주는 공공의 자산을 공유하여 우리가 살고 있는, 그리고 앞으로도 살아가야 할 도시의 가치를 높여야 한다.

이제는 다시 모여드는 매력 있는 도시로, 그리고 살 만한 가치가 있는 도시로 우리건축사들이 만들어 가야 한다. 시민(건축주)의 가치를 높이는 공공의 일을 우선 할 때에 경제적인 지위도 저절로 보장 되어질 것이다.

수준 높은 조형창작예술은 우리 건축사들의 자존감과 정체성을 회복하는 특권이다. 이 목적을 위하여 모든 건축사들의 참여와 공유가 지금 이 시간 필요하다. 건축은 그 도시의 얼굴이다, 이는 곧 우리 건축사들의 얼굴이다. ☞

해양관광 도시 목표!
풍요롭고 살기좋은 도시 목표!
전라남도 건축문화의 선도도시 목표!
목포지역건축사회가 지역건축문화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목포지역건축사회 이경일 회장 외 회원일동

- | | | |
|---------------------|---------------------|---------------------|
| 강길선 우광 건축사사무소 | 박용묵 다산 건축사사무소 | 전인천 다르다 건축사사무소 |
| 강성일 반석 건축사사무소 | 박현진 지에스 건축사사무소 | 정 훈 신화 건축사사무소 |
| 고근식 예문 건축사사무소 | 백재봉 백 건축사사무소 | 정 훈 건축사사무소 대성 |
| 김 정 대진 건축사사무소 | 손상미 (주)우영기술단 건축사사무소 | 정경래 한남 건축사사무소 |
| 김광호 김광호 건축사사무소 | 손지연 미르 건축사사무소 | 정민선 계원 건축사사무소 |
| 김교일 진명 건축사사무소 | 승 민 세울 건축사사무소 | 정순홍 건축사사무소 마루21 |
| 김도현 다보건축사사무소 | 신승민 에스엠 건축사사무소 | 정영삼 건축사사무소 도현 |
| 김동만 대림 건축사사무소 | 안문호 건축사사무소 알파 | 정용재 태진 건축사사무소 |
| 김동찬 타워 건축사사무소 | 오병돈 플러스 건축사사무소 | 정원장 장원 건축사사무소 |
| 김미정 (주)웅창이엔지 건축사사무소 | 오용갑 건축사사무소 근대 | 정정진 건축사사무소 정원 |
| 김선수 제이에스 건축사사무소 | 오태윤 탑 건축사사무소 | 조성문 (유)종합건축사사무소 신도시 |
| 김울관 미도 건축사사무소 | 유장기 에이원 건축사사무소 | 천준필 유토 건축사사무소 |
| 김재호 건축사사무소 휘람 | 윤순하 대하 건축사사무소 | 최수용 (유)아름 건축사사무소 |
| 김정철 AD 건축사사무소 | 윤연탁 건축사사무소 모던아트 | 최일영 대양 건축사사무소 |
| 김창석 태승 건축사사무소 | 이경일 원 건축사사무소 | 최종화 예소 건축사사무소 |
| 김태석 동아 건축사사무소 | 이명동 명진 건축사사무소 | 최현호 뿌리 건축사사무소 |
| 남효정 건축사사무소 수 | 이상권 동림 건축사사무소 | 최희주 청목 건축사사무소 |
| 노경윤 (주)토마 건축사사무소 | 이수진 미래 건축사사무소 | 홍성창 홍성창 건축사사무소 |
| 노상익 전일 건축사사무소 | 이승현 (유)예가 건축사사무소 | 황영호 한국종합 건축사사무소 |
| 문명석 삼호종합 건축사사무소 | 이정심 가인 건축사사무소 | 이환영 신도시 건축사사무소 |
| 박계옥 (유)종합건축사사무소 신도시 | 이종호 성진 건축사사무소 | 이환옥 동일 건축사사무소 |
| 박동영 (유)천년 건축사사무소 | 이창국 창조 건축사사무소 | 전생규 우리 건축사사무소 |
| 박명재 명제 건축사사무소 | 이형주 건축사사무소 나승건축 | |

건축문화사랑 신문 선정, 2013년 올 한해 건축계 News&issue

대한건축사협회, 정관 개정(회장임기 3년과 직선제)과 신임회장 ‘김영수 건축사’ 선출



사진출처:대한건축사협회/사진에서 우측 김영수 회장

대한건축사협회는 지난 2월 27일 서초동에 위치한 건축사회관 1층 대강당에서 ‘제47회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총회에서 ‘정관 개정의 건’, ‘2012년도 건축사교육원회계 추가경정예산 추인의 건’, ‘2012년도 결산의 건’, ‘제1차 협회발전기본계획 2013년도 실천계획 수립의 건’, ‘2013년도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의 건’, ‘건축사공제조합 법인 설립의 건’. ‘임원 선출의 건’의 부의안건을 상정했다. ‘정관 개정의 건’은 축조심의하여 별도법인 설립, 회장 직선제, 임원 및 대의원 임기변경(2년→3년), 협의회 설치운영, 추대회원 자격변경(정회원자격 25년 이상→30년 이상)을 원안대로 승인했으며, 이와 함께 ‘2012년도 건축사교육원회계 추가경정예산 추인의 건’, ‘2012년도 결산의 건’, ‘제1차 협회발전기본계획 2013년도 실천계획 수립의 건’, ‘2013년도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의 건’도 원안대로 승인했다. 한편 ‘건축사공제조합 법인 설립의 건’은 거수로 찬반을 가린 결과, 찬성 90표를 얻어 부결됐다.

이와 함께 임원선출에선 제30대 대한건축사협회 회장에 기호3번 김영수 건축사(주)민영종합건축사사무소)가 당선됐으며, 2013년 감사에는 기호2번 김득수 건축사(종합건축사사무소 SSP삼대)가 당선됐다.

광주건축사회장 ‘안길전 건축사’, 전남건축사회장 ‘국원식 건축사’, 전북건축사회장 ‘김남중 건축사’ 선출



광주건축사회 안길전 회장



전라남도건축사회 국원식 회장



전북건축사회 김남중 회장

대한건축사협회장에 이어 광주·전남·전북건축사회도 새로운 회장이 선출됐다. 먼저 광주광역시건축사회는 지난 3월 9일 광주 동구 신양파크호텔에서 제26회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안길전 건축사(주)일우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를 제14대 회장으로 선출했으며, 전라남도건축사회는 3월 15일 목포 샹그리아비치호텔에서 제47회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국원식 건축사(건축사사무소 한신)를 제25대 회장에 선출했다.

이에 앞서 전라북도건축사회는 작년 12월 6일 전주 웨딩캐슬에서 2012년도 제1회 임시총회를 개최하고 제25대 회장에 김남중 건축사(주)라인 종합건축사사무소)를 선출했다.

올해도 이어진 건축사들의 따뜻한 봉사활동



2013년 올 한해도 광주·전남·전북 건축사들의 따뜻한 봉사활동은 이어졌다. 먼저 광주건축사회는 지난해 12월 초 남구 서동에 위치한 사랑의 쉼터에 성금을 기탁했으며, 같은 날 광주 북구청을 방문해 350만원 상당의 사랑의 연탄 및 현금을 기탁했다. 또한 회원 30여명이 북구 신안동에 위치한 독거노인 집을 찾아가 연탄 배달봉사활동을 했으며 올해 7월에는 중북을 맞아 광주 남구 월산동에 위치한 남구 노인복지관에서 배식봉사 활동을 진행했다. 이외에도 광주건축사회는 불우 이웃 성금모금과 체육단체지원에도 적극적으로 나섰다.

전주시건축사회는 지난해 12월 말 전주시와 해피하우스 사업을 위한 재능나눔 협약을 체결하고 지역내 단독주택에 대한 설계재능 기부와 기부금 등을 전달하기도 했으며 아울러 건축관련 상담에 나섰다.

전북건축사회도 지난 5월 28일 전주완산소방서에 상대적 화재 취약계층인 기초생활수급자의 소방안전 확보를 위한 250만원 상당의 단독경보형감지기를 기증했으며, 전남 순천지역건축사회는 지난 7월에 순천시 민원실에 ‘건축 상담 코너’를 마련하여 무료상담 지원에 나서기도 했다.

국토부, ‘건축물 감리제도’ 국가차원의 개선 정책 수립 나서

국토교통부는 12월 13일 건설회관 2층 대회의실에서 건축물 감리제도 개선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할 것으로 알려졌다.

건축물 감리제도와 관련하여 작년 12월 새누리당 김태흠 의원이 발의한 건축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1년째 계류되어 있는 상태에 따라 이와 관련해 국토교통부가 건설기술 연구원에 의뢰한 연구 용역도 발표(발표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황은경 연구위원)된다.

김태흠 의원(충남 보령·서천)이 발의한 건축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건축주, 공사시공사 또는 공사감리자가 설계자의 설계의도가 구현되도록 설계자를 건축물의 건축과정에 참여시키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설계의도 유지 및 구현을 위해 설계자가 건축물의 관리계획서를 건축주에게 전달하도록 했으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건축물에 대해서는 허가권자가 설계자가 아닌 건축사를 공사감리자로 직접 지정하도록 함으로써 건축물의 부실 방지를 예방할 수 있도록 했다. 공청회에서 연구 용역 발표에 이어 토론이 진행되는데, 건축대학교 강병근 교수를 좌장으로 하고, 토론자에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김상문 과장과 건국대학교 김낙중 교수, (주)종합건축사사무소 온고당 안우성 대표, 한국건설감리협회 황이숙 정책기획실, (주)에시트 종합건축사사무소 이강호 대표, 건축사사무소 간향 조충기 대표, 아키텍그룹성창 건축사사무소 조동욱 대표가 참석한다.

건축사교육원 설립, 건축사 실무교육 시행

대한건축사협회는 건축문화창달을 위한 협회의 역량 강화와 선진 한국 건축을 이끌 어갈 건축사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원하기 위해 건축사 교육원을 설립했다.

이에 따라 건축사자격 갱신등록의 필수요건으로 건축사 실무교육을 이수해야한다. ‘건축사법’ 제30조의2(건축사의 실무교육)는 ‘건축사는 건축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 지식과 기술적 능력을 높이기 위하여 제18조제5항에 따른 갱신등록을 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실시하는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구분		기간	교육이수시간	등록구분
건축사 자격 취득자	2012.5.30 이전 자격취득	2012. 5. 31부터 1년(유예기간)이내	없 음	자격 등록 시
		자격취득 이후 3년 이내	없 음	
		자격취득 이후 3년 초과 (유효기간내 등록하지 않는자)	12시간	
	2012.5.31 이후 자격취득	자격취득 이후 3년 이내	없 음	
		자격취득 이후 3년 초과	12시간	
건축사자격 취소자		자격 재 취득 이후 3년 이내	없 음	
		자격 재 취득 이후 3년 초과	12시간	
건축사자격 등록취소자		취소된 날로부터 2년 초과 3년 이내	없 음	
		취소된 날로부터 3년 초과	12시간	
5년내60시간 미이수자		없 음	미이수시간	갱신 등록 시

대한민국 건축계의 상징 ‘공간’ 부도와 사옥 매각

올해 초부터 좋지 않은 소식이 대한민국 건축계를 흔들었다. 한국 현대건축사에 큰 획을 그은 건축설계사무소 ‘공간’이 ‘파산 지경’에까지 처했다.

1960년대부터 한국을 대표하는 다수의 건축물을 설계한 공간종합건축사사무소는 주미 한국대사관, 서울 올림픽주경기장 등을 설계한 고 김수근 건축사에 의해 1960년 설립됐다. 공간건축은 2012년 12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고 금년 1월 2일 최종 부도 처리됐다. 이와 함께 공간 사옥 또한 매각 처리 절차를 밟게 되었는데, 예술 전시 관련 업체인 (주)아라리오가 공간 사옥을 사들였다. 공간 사옥은 담쟁이 넝쿨과 검은색 벽돌로 이뤄진 본관과 공간의 2대 대표인 건축가 고(故) 장세양이 증축한 유리 신사옥, 이상림 현 대표가 증·개축한 ‘ㄷ’자 형태의 한옥이 어우러진 현대건축물이다.

아라리오갤러리는 “공간 사옥 내부 공사 등을 거쳐 내년 9월경에 미술관으로 새롭게 개관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또한 ‘김수근 작업실’은 훼손하지 않고 보존하며 공간 사옥의 원형 또한 훼손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전했다.

언론에 보도된 광주지역 일부 건축사들의 위법행위

올해 초부터 광주지역 일부 건축사들의 위법행위로 인해 전체 건축사들의 명예가 크게 실추되는 불미스러운 사태가 발생했다.

4월에는 언론에 원룸의 가구 수를 늘리기 위해 무단 증축을 하거나 허위로 감리한 광주지역 건축주와 건축사 등 142명이 경찰에 적발됐다는 내용이 보도됐다. 광주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가 불법으로 원룸을 증축하거나 대수선한 혐의(건축법 및 주차장법 위반 등)로 건축주 등 87명을 불구속 입건했으며 불법 증축된 원룸 건물을 허위 감리해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고서를 작성한 혐의(건축법 위반 및 사문서 위조·행사)로 건축사 등 55명도 입건했다는 내용이었다.

또한 9월에 경찰은 광주지역 5개 구청의 관련자료를 토대로 2010년 이후 건축허가된 원룸 364곳에 대한 현장조사를 벌여 불법으로 증축되거나 대수선된 161곳을 적발했다. 적발된 원룸 가운데에는 지하주차장 일부 공간에 원룸을 짓거나, 3가구로 건축허가를 받은 원룸을 18가구로 나눈 곳도 있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4_ 작품소개

전라북도는 건축문화의 발전과 아름다운 건축물을 확산하고 나아가 건축문화의 미래를 이끌어갈 건축인 발굴을 위하여 추진한 『제14회 전라북도 건축문화상』 수상작을 선정 발표하였다.

제14회 전라북도 건축문화상

사용승인 대상 한국농어촌공사 사옥 이길환 건축사 (주)길 건축사사무소

대 상 : 한국농어촌공사사옥	(주)길 건축사사무소	이길환 건축사
금성(공공) : 부안 참뽕연구소	윤 건축사사무소	윤창식 건축사
은성(공공) : IKSAN T HOUSE	건축사사무소 KDDH	김동희 건축사
금성(일반) : 바울센터	(주)올그룹 건축사사무소	김희순 건축사
은성(일반) : 휴안재	건이 건축사사무소	장영삼 건축사
일반부문 금상, 은상 작품은 협의하여 미제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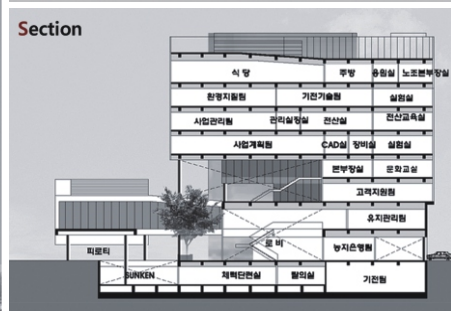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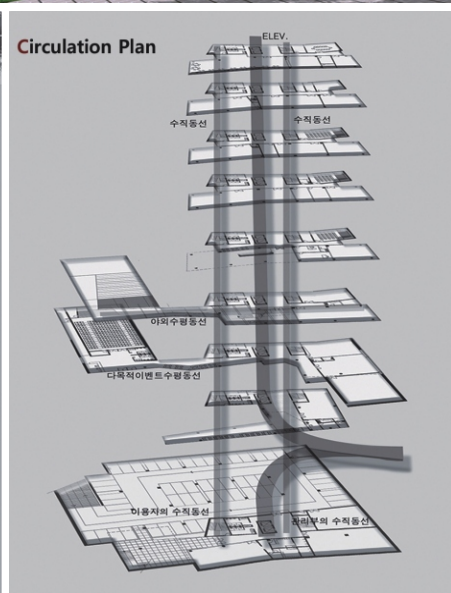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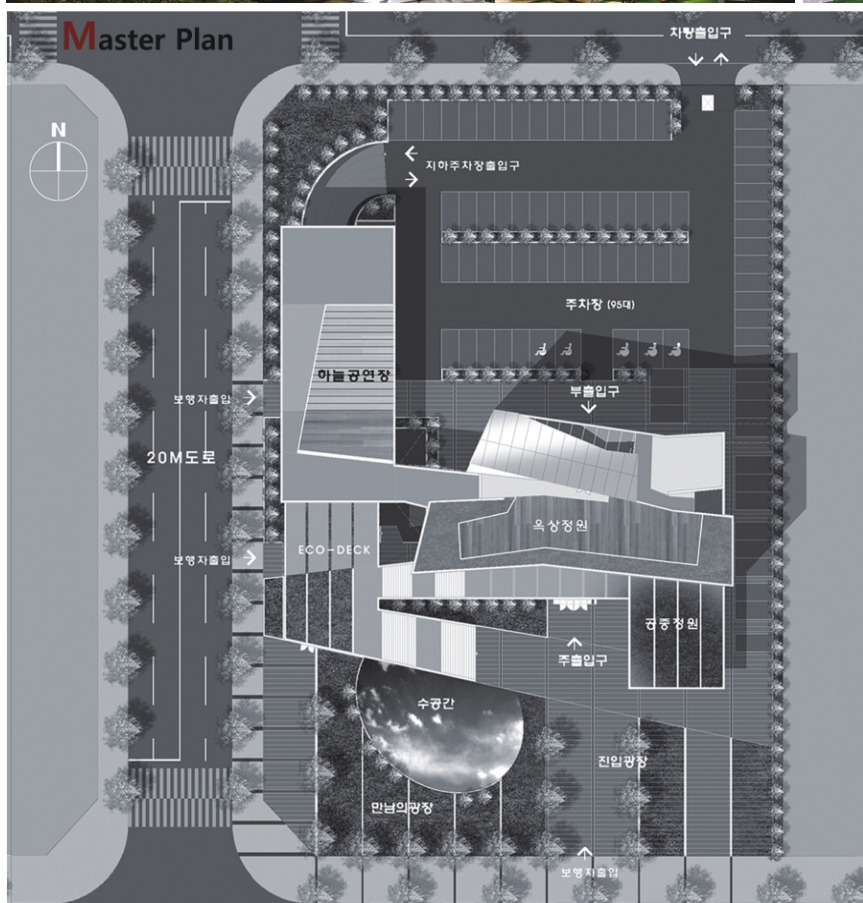
Design Concept



Friendly natural
harmony

Space and nature of the connection

Symbolism grant from the cit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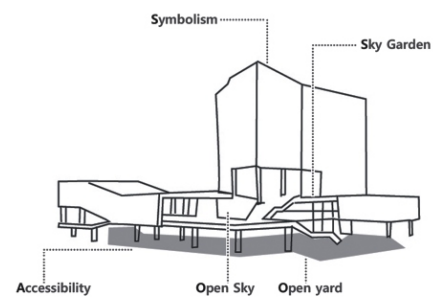


계획 개념

한국농어촌공사사옥은 친환경, 열린공간, 상징성 등을 목표로 투명성 있는 경영과 열린 행정 등 건립 의도와 이념이 공간에 충분히 표현 되어질 수 있도록 계획되었다.

또한 자연과 도시가 투영될 수 있는 건축재료를 사용함으로써 투명한 경영과 열린 행정의 의지를 반영하였으며, 비워진 각 공간과 마당을 통하여 건물과 자연 그리고 도시가 서로 소통하도록 계획하였다. 또한 새롭게 시작 되어지는 도시에서의 상징성을 부여함과 동시에 지형 및 주변 건축물과의 조화를 고려하여 건축되어질 수 있도록 계획하였다.

대상지는 도시의 복합적 컨텍스트의 성격을 갖는다. 그 각각의 성격에 대응하는 반응체를 구성하고, 도시축에 의해 자연스럽게 도출된 배치형태는 각 프로그램에 따라 스스로 영역을 규정한다. 비워진 광장은 시민에게 열린 공원이 되며 거리가 된다.



2000년에 제1회 행사를 시작한 『전라북도 건축문화상』은 올해 제14회로서 “경계 그리고 어울림”이라는 주제 아래 지난 3월 건축문화상 공고 이후 10.21~10.22(2일간) 이틀간 4개의 분야로(계획작품부문 학생부와 일반부, 사용승인부문, 건축사진 부문) 응모작품을 접수한 결과 총 90점의 작품이 접수되었으며 10. 29(화)에 전문가로 구성된 7명(교수6, 건축사1)의 심사위원이 7시간에 걸친 심도를 통하여 각 부문별 수상작 19작품을 선정하였다.

공공부분 금 상 부안 참뽕연구소 윤창식 건축사 윤 건축사사무소



대 지 면 적 : 6,818.00㎡
용 도 : 교육연구시설(연구소)
규 모 : 1,428.42㎡ / 지상3층
주 요 구 조 : 철근콘크리트조
구 조 : 철근콘크리트조
주요마감재 : T30화강석고운다듬, T3 알루미늄쉬트, T0.7VM징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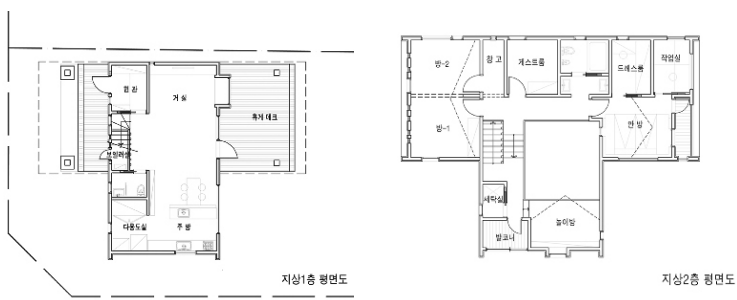
부안 참뽕연구소는 명품 부안 오디뽕의 세계화로 지역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제품 연구개발 시설을 갖춘 연구시설이다. 대지는 나즈막한 산자락 끝에 접해있고 삼면으로 열려있는 환경을 가졌다. 이 연구시설은 옥외 진입마당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사무 및 연구시설과 홍보 및 대회의실 영역을 기능별 공간 배치하였으며 두 영역을 진입부에서 캐노피로 연결하여 연구시설로서의 매개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공공부분 은 상 IKSAN T HOUSE 김동희 건축사 건축사사무소 KDDH



대지위치 : 전라북도 익산시 모현동 2가 586
대지면적 : 273.70㎡
건축면적 : 1㎡11.60㎡
연 면 적 : 193.76㎡ 1층 104.64㎡ 2층 89.12㎡
용 적 륜 : 70.79%
건 폐 율 : 40.77%



전라북도 익산시 모현동에는 집 속에 집이 있고 집 위에 집이 있는 그런 집이다. 1층의 주방, 거실의 공용 공간으로 2층의 아이놀이공간 집 속의 집과 2층의 아이방, 화장실, 안방, 작업실은 개인 공간으로 구성된다. 대지의 남쪽에는 공원이 있고 거실과 주방은 공원의 녹지공간을 마음껏 받아들일 수 있도록 공원과 나란히 배치되어 있다. 2층의 작업실은 공원 놀이터 쪽으로 쪽 뻗어 있어서 아이들의 신나게 노는 모습을 지켜볼 수 있다. 아이들이 맘껏 뛰어 놀 공간이 제일 중요했던 엄마의 마음은 공원까지도 품을 수 있고 공유할 수 있는 집을 만든다.

한·중·일 비교로 보는 건축미의 원천2_3부

» 건축 속의 물



이왕기 교수
목원대학교 건축학부
건축공학전공
Leewk@mokwon.ac.kr

2-1부 : 마당으로 보는 3국 건축 - 2013년 10월 게재
2-2부 : 창호(窓戶)로 보는 3국 건축 - 2013년 11월 게재
2-3부 : 건축 속의 물 - 2013년 12월

※이왕기 교수의 한·중·일 비교로 보는 건축미의 원천 1편은 2013년 2월(39호)부터 2013년 6월(43호)까지 연재되었음을 밝혀둔다.

대전에 위치한 목원대학교 건축학부의 이왕기 교수는 우리나라에서 잘 알려진 건축역사학자이다. 한국을 비롯한 중국, 일본의 건축역사까지... 동양 건축사에 대해 전문가로서 비교 분석한 내용을 본지에 연재코자 한다.

건축을 구성하는데 물은 필수 요소는 아니지만 충족요건은 된다. 건축 속에 물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은 많은 차이가 있다. 물은 정적(靜的)이면서 동적(動的)이다. 물은 생명의 근원이고, 문명을 낳고, 도시를 발전시킨 원동력이다. 물은 사유를 낳고, 사람을 움직인다. 이러한 특성을 지닌 물은 일찍이 건축에 접목되어 다양한 형태로 건축요소에 사용되었다.

물이 건축에 접목되어 만들어진 수경(水景)은 동양에서는 가장 자연적인 건축요소가 된다. 흘러가기도 하고, 머물러 있기도 하고, 소리를 내고, 빛을 반사하고, 크기도 하고, 작기도 하고, 건축과 어울려 천대만상의 형상을 만들어 낸다. 물은 건축을 풍요롭게 만들어주기도 하고, 즐겁게 만들어 주기도 한다. 건축과 물이 만나면 건축물조차도 살아 움직인다.

동양 3국에서 물을 건축요소로 사용할 때 근본적으로 자연의 이치를 거스르지 않도록 접목시킨다. 낙수(落水)는 만들지언정 서양처럼 분천(噴泉)을 만들지 않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건축 속에 물이 들어와 하나의 건축요소로 사용하는 의미는 동양 3국이 같으나 표현 방법은 전혀 다르다. 수로와 연못, 폭포, 다리, 수석, 섬, 정자 등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건축요소를 3국이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그 특징을 보자.

1) 중국

중국 건축에서 물은 자연형태로 만드는데 그 물은 고여 있는 물이다. 물이 들고 나는 것을 좀처럼 수경으로 만들지 않는다. 연못 자체의 수경으로 만족한다. 한국과 같이 방지(方池)로 만들지 않고 가능하면 크게 만든다. 그래서 중국 연못 이름에는 ‘海’자가 많이 등장한다. 비록 작은 연못이라도 ‘海’자를 붙인다. 중국 건축에서는 물과 건축을 교합적 방법으로 접목시킨다. 집안으로 수경을 끌어들이되 하나의 틀 속에 집어넣어 관조할 수 있도록 만들기도 한다. 이렇게 할려면 작은 수경으로는 불가능하다. 중국에서는 건축이 물을 가로지르는 방법을 사용한다. 연못 위로 다리를 놓되 그 다리는 직선이 아니라 틀어지거나 지그재그로 만들어 물 위를 거닐게 만든다. 이런 방법은 일본이나 한국에서는 찾아볼 수 없다. 심지어 물 가운데 정자를 두어 물위에 오래 머물게 함으로서 물과 건축과 사람이 교합하도록 한다.

중국건축의 연못은 흐르지 않는 정지된 물이다.(실제로는 흐르지만 느낄 수 없다.) 물이 흐르면 강이 되므로 정지되어 있듯이 만든다. 그래서 중국 건축 속의 물은 ‘정중정(靜中靜)’이다.



▲ 그림 1. 중국 건축에서 물에는 다리를 놓고 정자를 두어 사람이 거닐면서 건축과 물이 교합하도록 만드는 기법을 사용하였다.



▲ 그림 2. 중국 서원건축에서 연못은 보는 것이 아니라 건너는 곳이다. 대부분의 중국 건축 속의 물은 관조의 대상으로 하지 않고 물 위를 지나가도록 만들었다.

2) 일본

일본 건축에서 물은 자연형태로 만들되 그 물은 흐르는 물이다. 물이 들고 나가는 곳조차도 수경으로 보이게 한다. 큰 연못도 있지만 연못이라고 보기 어려운 아주 작은 연못도 만든다. 심지어 물이 없는 연못도 건축 속에 만들어 둔다. 그 물은 마치 살아 움직이는 듯하다.

엄청난 크기의 연못도 만드는데 그것은 단지 바라보면서 상상할 뿐이다. 아주 작은 연못을 통해 무한한 영역을 생각하게 만들어 둔다.

일본에서는 건축과 물을 교합하는 중국과 달리 건축에 물을 접목시키는 방법을 사용한다. 즉 물이 건축 속 깊숙이 들어와 하나의 건축요소로 경관을 만들어 낸다. 방에 앉아 흐르는 물을 관조할 수 있도록 만들기도 한다.

중국과 달리 물 위로 다리를 놓되 거닐게 하지는 않는다. 오직 수경을 감상하고 관조할 뿐이다. 강안과 해안을 만들고 물의 깊이를 조절하여 물 빛조차도 다양하게

표현하여 살아 움직이게 만들어 둔다. 수변에 정자를 두지 않고 수변과 집을 인접시켜 둔다. 그래서 일본 건축 속의 물은 ‘동중동(動中動)’이다.



▲ 그림 3. 일본 건축에서 물은 다양한 경관을 연출하도록 만들어 다만 관조할 수만 있다.(일본 교토 금각사)
▲ 그림 4. 일본 건축 중에는 물 없는 연못도 만든다. 아주 작은 마당에 대해(大海)를 상상하게 만들었다(교토 원성사 광정원)

3) 한국

한국 건축에서 물은 지극히 인공적인 형태로 만든다. 가장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조성 형태는 방지(方池)이다. 연못을 만들되 일본처럼 물 없는 못은 절대 만들지 않는다. 반드시 물을 두어야 한다. 물이 드나드는 곳을 감추지 않고 노출시킨다. 못 가운데 섬을 두되 중국이나 일본처럼 수석을 사용하지 않는다. 정자도 못 가운데 잘 안둔다. 한국의 연못 이름에는 중국처럼 ‘海’자를 쓰지 않는다. 한국에서는 건축과 물을 교합하는 중국이나 건축 속에 물을 끌어들이는 일본과는 달리 물에 건축을 접목시키는 방법을 사용한다. 즉 연못을 두고 수변에 정자를 두거나, 물이 흐르는 계곡에 건물을 앉히는 방법을 사용한다. 한국의 연못은 그것이 어디든 흐르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도록 만든다. 흐르는 물에 건축을 접목시킬 경우 반드시 물을 가두었다가 보낸다. 한국 건축에서는 물(연못)과 건축이 한데 어울리되 중국처럼 물 가운데 다리와 건축물을 두지 않고, 일본처럼 건축물 안으로 물이 들어오지 않는다. 물가를 거닐 뿐이다. 물은 물이고, 건축은 건축이되 경관이라는 하나의 틀 속에 어울리게 만든다. 그래서 한국 건축 속의 물은 ‘정중동(靜中動)’이다.



▲ 그림 5. 한국 건축 속의 물은 방지(方池)로 만들고 수변에 정자를 두어 관조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담양 식영정)



▲ 그림 6. 한국 건축에서 물은 반드시 물을 가두었다가 흘러보내면서 물과 건축이 어울리게 만들었다.(창덕궁 비원)

전남 서남부권 지역건축문화를 선도하는 목포지역건축사회장 이경일 건축사와의 만남

전남 목포지역건축사회장 이경일 건축사는 “진도군 섬마을에게 태어나 한 지역의 건축문화를 책임지는 건축사회장으로서의 소임을 맡게 된 것은 굉장한 영광이고 출세다”라며 자신을 회장으로서 믿고 지지해준 지역 회원들에게 감사함을 표했다. 한편으로는 요즘 전남지역의 건축행정 관련 문제들로 많은 지역 회원 분들의 고심이 크다며, “적절한 대응 방안을 수립하기 위해 전라남도건축사회와 협의하고 있으며 남은 임기동안 회원들의 권익 보호에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이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지난 12월 6일 이경일 건축사를 만나 인터뷰한 내용이다.



대표작: 목포시 상동 폰타나비치 호텔

목포지역건축사회 회장으로서 취임후 현재까지의 성과와 향후 사업계획 등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취임 1년 정도 되었는데 취임하자마자 전라남도의 건축행정 건실화 방침에 따라 다가구·다세대 주택 등을 대상으로 위법 행위 조사가 이루어졌고, 그 결과 전남 지역 건축사 약 80여명이 행정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회장으로서 우리 지역 회원들의 뒷바라지를 해줘야 한다는 일념으로 개인적인 일보단 틈나는 대로 회장단 회의와 관계 변호사를 만나는 등 너무 힘든 시기를 보낸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억울한 회원들이 절대 없어야 한다는 생각뿐입니다. 이 일을 잘 마무리 하고, 내년에는 우리 건축사들이 설계·감리비를 제대로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그 모든것을 위해 우리 회원들과 머리를 맞대고 함께 고민하고 노력 하고자 합니다.

건축사로서의 걸어오신 길...

진도군 조도면에서 태어나 건축에 대한 꿈을 꾸며 물으로 나와 목포기계공업고등학교와 목포과학대학 및 초당대학교에서 건축을 공부했습니다. 건축사사무소에서 실무 수련을 거쳐 98년도에 건축사 면허를 취득해 원 건축사사무소를 개업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지역 발전에 일조하고자 각종 위원회 위원으로도 활동했는데 목포시 미술장식 설치 심의위원을 시작으로 전라남도 지방환경분쟁조정 위원, 목포 김현문학관 심의위원, 목포시 경관위원회 위원, 영암군 건축위원회 위원, 목포시 경관위원회 위원, 영암군 건축위원회 위원, 목포시 공동주택 지원 심사위원회 위원 등을 들수 있습니다.

수상 경력도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많지는 않지만 몇 가지 말씀드리면 2006년에 목포건축문화상을 수상했고, 2009년 목포시장 표창패와 2010년 국세청장 표창장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칭찬을 아끼지 않으셔서 감사할 따름입니다.

건축사님께서 확립하신 철학에 대해...

나만의 건축철학을 확립하기에는 아직 이른 시기인 것 같습니다. 다만 그동안 건축을 하면서 많은 걸 보고, 느끼고 생각하는 그런 건축을 해야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건축사들은 자신의 작품을 통해 말을 한다고들 합니다. 이 업에 약 25년 넘게 있으면서 이제야 건축의 언어를 조금씩 알아가는 것 같습니다. 한단계씩 나만의 철학을 확립하고, 그 확립된 철학을 가지고 작품 활동을 하는 그날을 기대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사 활동을 하면서 자랑스러울 때와 부끄러울 때...

건축사는 공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인정 받을때 기쁘고 자랑스럽습니다. 그리고 공인으로써의 책임감도 느껴집니다. 부끄러울 때는 많은 건축사들이 공감하시겠지만 돈의 노예가 되었을 때입니다. 그래서 먹고 살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자존심을 버리는 일이 없도록 경제적인 기반 구축에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가장 존경하는 건축사는...

건축 설계·실무 수련을 받았던 황영호 건축사님께 가장 많은 영향을 받았습니다. 건축사 시험에 수석으로 합격하셨을 뿐만 아니라 작품에 대한 아집과 철학을 갖고 계셨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제가 본받고 싶은 건축인 상입니다.

선후배 건축사들에게...

해야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 그리고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을 명확히 판단하고 구분함으로서 출혈경쟁을 자제하고 제안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 건축인들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한 자부심과 긍지가 가졌으면 합니다. 어려운 건축경기와 제도적인 제재 속에서도 우리가 자부심과 긍지를 갖고 한뜻 한마음으로 뭉쳐 이 어려운 상황을 타개하도록 했으면 합니다.

취재 : 서재형 편집인, 백재봉 건축사기자
정리 : 광승국 전담기자 gkira@empas.com



전남/원 건축사사무소 이경일 건축사



▲ 대표작: 여수시 동산동 국립 여수체육소



▲ 대표작: 목포시 옥암동 에메랄드 골드



▲ 대표작: 목포시 용당1동주민센터 신축공사



▲ 대표작: 목포시 상동 일해빌딩



광주건축사신용협동조합

500-876 광주광역시 북구 무등로 255(4층) TEL. 062)527-8890~1



실속있는 비과세 예금



어려울 때 힘이 되는 보험서비스



빠르고 편리한 전자금융서비스



조합원을 위한 맞춤대출 (신용, 담보)



신협만의 참조합원 우대 서비스

보다 더 큰 믿음과 혜택을 드립니다

신협 vs 은행 비교 분석

구 분	신 협	은 행
비과세 혜택	1인당 예적금 3천만원까지 이자소득세 면제, 농특세 1.4%만 부과	이자소득세 14%, 지방소득세 1.4% 부과
이익금 분배	조합원에게 전부 환원(비영리 조직)	주주에게 배분(영리조직)

* 신협은 은행과 마찬가지로 1인당 예적금 5천만원까지 안전하게 보장됩니다.

2013년 대명리조트 겨울 성수기 이용에 대해 안내합니다.
현재 변산, 홍천 두 지역만 신청 가능합니다.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이외 지역은 신청불가)

▶ 변산 기간 : 2013. 12. 24 ~ 2014. 1. 12
패밀리 (침실 + 거실 겸 침실 + 주방 + 욕실)
1인당 1박 신청 가능 / 객실형태 변경 불가

▶ 홍천 기간 : 2014. 1. 13 ~ 2014. 1. 22 (1차)
(비발디파크) 2014. 2. 1 ~ 2014. 2. 10 (2차)
스위트 (침실2, 거실, 주방, 욕실1) - 오크동
1인당 2박 신청 가능 / 객실형태 변경 불가

광주에코디자인 주식회사
문의전화 : 062) 527 - 8890 ~ 1

2013년 대한민국 공간문화대상 대통령상 수상 특별기획 “광주광역시, 주민과 함께 밝고 환하게 웃는 동네 만들기”

본지 11월호(48호)에 예고한대로 2013년 대한민국 공간문화대상 대통령상을 수상한 광주광역시 ‘주민과 함께 밝고 환하게 웃는 동네 만들기’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을 독자들에게 알리고자 계획 및 설계를 맡은 ‘(사)도시연구소 시중’ 이순미(건축사사무소 미가온 대표) 연구소장을 지난 12월 5일 그의 사무실에서 만났다. 다음은 이순미 연구소장과의 인터뷰 내용이다.

이순미 연구소장
(사)도시연구소 시중
(건축사사무소 미가온 대표)



2013년 대한민국공간문화대상 대통령상 수상을 축하드립니다. 소감 한마디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한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적은 사업비로 큰 효과를 이룬 것이라 더욱 기쁩니다. 땀뻑하게 진행된 프로젝트에 많은 협조를 해주신 주민 여러분들께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함께 해주신 전남대학교 건축학부 학생들과 건축, 조경, 시공사, 공무원 등등 모든 관계자 분들께서도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소통과 문화가 있는 도시 경관만들기에 앞장선 모든 분들의 헌신적인 노력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공간문화대상은 어떤 목적으로 시상되는 상입니까.

대한민국 공간문화대상은 문화체육관광부와 (사)한국건축가협회가 우리의 일상생활 공간을 사람과 문화가 주인이 되는 공간으로 만들어 나가고자 제정한 상입니다. 아름답고 쾌적하며 편리하고 즐겁게 이용할 수 있는 일상생활 속의 공간을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주민과 더불어 창출하고 개선한 사업을 발굴하여 이를 격려하고 널리 알리고자 이 상을 제정하였습니다.

대통령상을 수상한 ‘주민과 함께 밝고 환하게 웃는 동네 만들기’에 대해 추진 배경 및 사업 내용 등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광주광역시 동구 계림동 푸른길 일원 인근주택지를 대상으로 진행된 프로젝트는 약 10여년전 기차가 떠난 후에 남은 기차길을 푸른길로 새롭게 조성하였는데 그 옆에 남아 있는 황량하고 폐쇄적이며 불안정하기까지 한 담장과 쉽게 접근하기 어려운 폐가가 여전히 남아 있어 푸른길을 걷는 사람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했습니다. 오래 전 기차길의 위험을 방어하기 위해 쌓아 올린 담장은 세월의 흐름 속에 낡아서 누구의 안전도 보장하지 못한 채 그 안에서 거주하는 사람과 그 밖을 오가는 사람들을 서로 등 돌리게 하는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 여러 차례의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주민들의 요구 사항을 반영한 설계안을 합의하였으며, 사업과정의 적극적인 참여와 향후 유지관리를 위한 경관협정서를 체결하였습니다. 주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공공문화 활동을 진행하였고, 교육프로그램은 ‘경계의 재해석’이라는 과제로 전남대학교 건축학부 학생들과 함께 했습니다. 개선프로그램은 건축, 조경, 시공 전문가가 참여하는 등 산학관민이 모두 함께한 프로젝트라 볼 수 있습니다. 여러 내용 중 가장 큰 부분을 말씀 드리면, 그동안 폐자재, 잡초, 쓰레기가 쌓여 민원이 많았던 공터를 수많은 설득으로 소유주의 동의를 얻어 공공의 목적인 주민들의 쉼터를 겸한 파빌리온(아래 사진 참고)으로 재탄생 시켰고, 푸른길과 인접한 골목길이 그동안 벽으로 막아섰던 장벽을 제거하자, 멀리 돌아서 다녀야 했던 푸른길에 곧바로 접근 할 수 있게 되어 오랫동안 단절된 곳에 소통이 이루어지게 만들면서 주민들간의 친밀도를 높이는 효과를 이룬 ‘길 잇기’(아래 사진 참고) 부분 등이 있습니다. 이 외에도 수많은 개선 내용들이 있으니 많은 분들이 직접 현장을 보고 느끼시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업을 추진하시면서 어려웠던 점이나 에피소드가 있으시다면?

프로젝트들을 추진하면서 많은 에피소드들이 생깁니다. 주민들과 협의하여 진행하면서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셨던 주민들, 그렇지 않은 주민들... 고생한다고 음료수나 과자 등 먹을 것을 가져다주셨던 주민들..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지만 많은 관심을 보내준 주민들 등 어쩌면 이런 부분들이 서로 이해하고 소통하는 그런 문화가 있는 도시가 아닌가 생각했습니다. 계획 부분 중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공터(현재 파빌리온 설치장소) 주인이 계셨는데 그 곳을 꼭 사용해야만 이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결실을 맺을 수 있다는 생각에 연락을 드렸습니다. 대지사용료를 주라는 요구나 CCTV를 설치해 달라는 요구 등을 하셨는데, 넉넉하지 못한 예산에 그렇게 할 수 없다는 의사를 전했고, 몇 번의 설득 끝에 사유지임을 명기하는 조건으로 2년 무상 사용 승낙을 얻어 현재의 모습에 이르기까지 됐습니다. 다시 한 번 공공의 목적을 위해 땅을 내어주신 김광규 씨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이의 사업은 광주광역시와 (사)도시연구소 시중이 함께 추진하였는데 (사)도시연구소 시중은 어떠한 목적으로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습니까.

2009년 비영리법인으로 설립된 우리 연구소(대표 : 이의충)의 목적은 우리 도시가 안고 있는 문제를 분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합리적인 정책대안 및 기획에서 계획, 그리고 설계 운영 등의 도시에 관한 사업을 정비하며 시민이 주체가 되어 함께하는 도시공동체 사회를 만드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끝으로 하고 싶은 실 말씀은...

우리가 잠시만이라도 주의를 돌려보면 취약한 곳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스스로 자기 동네부터 관심을 갖고 애정을 갖는다면 우리의 삶의 질을 상당히 향상될 것입니다. 이러한 프로젝트 등을 통해 우리 동네를 시작으로 좀더 넓은 곳으로 확산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한편 광주광역시 도시디자인과 관계자는 “2009년 시작된 이번 사업을 통해 경관 취약 지역의 주민들의 활기를 되찾게 해주고, 삶의 공간을 재창조했다”며 내년에도 경관 취약 지역 1개소를 선정하여 관주도가 아닌 산학이 함께하고 주민들이 스스로 자기 삶의 공간을 바꿀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주민과 함께 밝고 환하게 웃는 동네 만들기’ 사업은 지역 시민들에게 향후 이와 같은 철도부지가 폐지되면서 버려졌던 땅과 그 곳에 면한 주변의 주거시설로 구성된 열악했던 공간에 동네로서의 생명력을 불어넣고 이곳에 사는 이들과 이곳을 찾는 이들에게 소통감은 물론 기쁨과 즐거움을 주기에 충분한 좋은 마을로 도시의 소통, 생활의 소통, 문화의 소통 공간으로 재창조했다.”라는 평가를 받아 영예의 대상으로 선정되었다고 설명했다.



①지난 10월 22일 개최된 2013년 대한민국 공간문화대상 시상식에서...

②광주 건축 · 도시문화제 전시

③지난 12월 5일 건축문화사랑 편집위원들과 인터뷰

공사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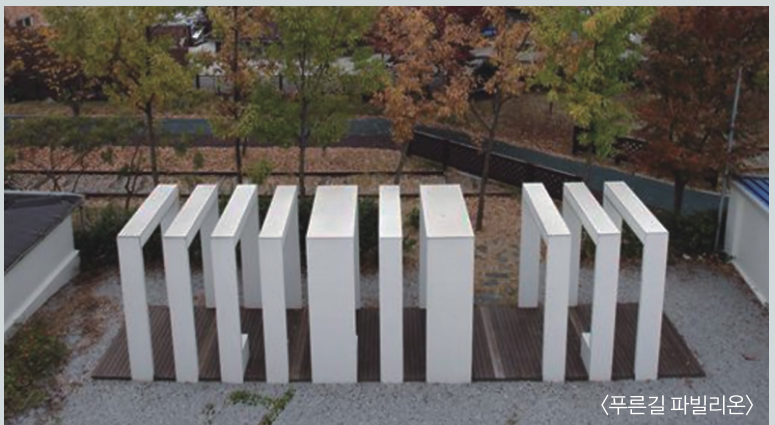
공사후



〈길잇기(여름)〉

〈햇빛담은 담장〉

〈해바라기공간〉



〈푸른길 파빌리온〉

아시아태평양주거학회(APNHR) 부회장으로 선출된 동신대학교 건축공학과 손승광 교수와의 인터뷰

동신대학교 건축공학과 손승광 교수는 우리 지역에서 건축설계를 비롯하여 건축계획, 친환경 건축의 전문가로도 잘 알려져 있다. 올해 초에 한국주거학회 차기회장(2014년도부터 회장 취임)으로 선출되었으며, 곧 이어 지난 가을에는 아시아태평양주거학회 부회장(임기 2년)으로도 선출되었다. 연구와 교육 뿐만 아니라 학술적 교류와 소통에도 소홀함이 없었던 결과다. APNHR 2015 국제 학술대회를 주관하게 될 손 교수는 광주에 건축과 주거 그리고 문화를 세계에 알리기 위해 고심하고 있었다. 다음은 지난 12월 5일 진행된 인터뷰 내용이다.

아시아태평양주거학회 부회장으로 선출되는 것을 축하드리며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주거분야에 대한 연구자들은 전 세계적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태평양을 중심으로 북아메리카와 아시아권의 연구자들이 활동하는 APNHR아시아태평양주거학회 부회장으로 활동하게 되어 개인적으로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가 부회장으로서 역할을 수행하면서 우리지역의 문제와 활동을 개선하고 세계화 시키는 데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아시아태평양주거학회가 하는 구체적인 일들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아시아태평양주거학회의 구성원들은 각각 자기들이 소속되어있는 국가들에서 당연하고 있는 주거문제, 건축 등에 관한 문제들을 연구하고 실무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주거문제는 전통적으로 주택, 아파트 등 주택타입과 공간구성이라는 측면에서의 연구들이 기본적인지만, 주택경제·주택정책·사회학·심리학·미래변화 등에 관한 분야까지 확대되어 다양한 분야의 연구 주제와 연구자들이 활동합니다. 또한 지역적으로는 다른 나라와의 비교를 통해 자기 나라의 주거문제를 진단하고 발전방향을 모색하기도 합니다. 그러한 입장과 필요성에 의해 각국의 주거문제 해법을 얻고자 국제 교류, 국제회의 학술대회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학자로서 걸어온 길

저는 부모님의 권유로 건축을 전공하게 되었습니다. 어려서 만들기를 좋아했고 손재주도 있는 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너무 일찍 길을 결정하였기에 고등학교 때부터 건축을 전공하기 위해 광주공고를 진학하게 됩니다. 당시에는 제가 설계해서 그림같은 집을 짓고 살아보겠다는 소박한 꿈을 갖고 있었습니다. 실업계고등학교에서 시작하여 연구자의 길로의 길을 간다는 것이 힘들었지만, 울산대학교·서울대학교·고려대학교에서 건축을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것은 오히려 다양한 풍토의 대학에서 여러 성향의 선생님들로부터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되었고, 건축을 바라보는 시야를 넓히는 데에도 도움이 되었으며, 교류의 중요성도 알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연구업적과 관심분야

외국의 이론과 건축은 많이 소개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의 건축은 어떤 것이고 미래에 우리의 건축은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생각으로 “전통한옥의 인간적 척도”라는 주제로 연구를 시작하여 석사학위를 취득하였습니다. 그 이후의 연구는 그러한 한국적인 공간에 대한 지식들이 우리사회에 필요하다면? 이라는 생각으로 “도시저층집합주거 모델개발”이라는 응용분야로 연구방향이 전환하게 됩니다. 저는 한국건축의 공간과 특성은 옛것에 머무를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의 건축으로 현재 진행형이어야 한다는 입장으로 연구를 지속해 오고 있습니다.

학계의 비전과 발전방향에 대해

선진국의 사회적 배경에서 주장되는 이론중에서 “향후 소비자가 만족하지 못한 시장은 성공하지 못한다”라는 건축분야의 진단이 1970년대부터 설득력을 얻기 시작했습니다. 우리에게도 소비자를 얻지 못하면(주문자의 주문을 받지 못하면) 전문가들이 설자리는 더욱 어려워진다는 것은 굳이 강조할 필요도 없을 줄 압니다. 이 소비자란, 사회변화에 의하여 달라지는 건축에 대한 목적, 수요타입, 패턴, 취향, 선호도, 소비구조를 말하는 것으로 “건축이 사회를 반영하는 거울”이라는 정의를 어느 때보다도 실감나게 생각해야 하는 시대라고 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급진적으로 발전해왔던 경험과 개발시대의 논리와 공급자들이 결정한 성공사례에 도취하여 소비자위주의 사고에 대하여 아직도 도외시하는 경향이 도처에 많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동안의 노력과 경험을 바탕으로 학자로서의 철학은?

학자로서의 철학이라고 답하기는 민망합니다만, 부족하고 모르는 것들이 아직도 많습니다. 건축에 대하여 모르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의 전문가가 되는 수준이 아니더라도 그 분야의 전문가와 공동으로 작업할 수 있는 정도의 지식을 갖추기 위하여 새로운 지식과 분야는 배우는 자세로 임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정보가 넘치고 있는 시대입니다. 특히,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 서울 등지에서 학회, 좋은 주제의 세미나가 있으면 참여하고 교류하고 배워가고 있습니다.

건축인, 제자들에게 한마디

건축은 그 시대의 과학과 기술, 예술, 사회, 경제 등 많은 부분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는데, 현대사회는 그 정도가 너무 심하게 복합적입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알아야하는가? 라는 문제와 어차피 다 알 수는 없기 때문에 부분적인 분야에 종사하는 전문가이면 된다는 입장이 혼재합니다. 양자가 일리가 있습니다만 부분적인 전문가로서 활동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그러한 사회로 되어가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독자적으로는 활동할 수 없는 부분적인 전문가라는 겸손한 마음으로 서로 소통하고 공존하는 기술인으로 활동하였으면 합니다. 건축이라는 분야가 너무 광범위하여 “코끼리 뒷다리를 만지면서 이게 코끼리야”라고 말하는 건축인들이 없기를 바랍니다.

광주와 동신대학교에서 APNHR2015 국제학술대회 개최

제가 아시아태평양주거학회 부회장으로 활동하는 동안에 우리나라에서 APNHR 2015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하는데, 광주와 동신대학교를 중심으로 2015년 4월에 4박5일 동안 개최하고자 합니다. 그 행사를 통해 이 지역의 문화를 세계에 알리는 계기로 삼기 위해 최선을 다해 준비하고자 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취재 서재형 편집인, 박종호 건축사기자



전남/동신대학교 건축공학과 손승광 교수



아시아태평양주거학회APNHR 2013 conference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이번 학회를 주관한 APNHR 2013 조직위원회 팀과
레베카회장과 함께



아시아태평양주거학회APNHR 2013 conference-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푸드라자야를 답사하면서

광고 및
공독신청

건축문화

사랑

“건축과 도시, 사람과 자연의 경계를 넘는
소통과 공유의 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한 적극적인 관심과 사랑을 바랍니다.

- 16면 전면광고 : 1,500,000원
- 16면 외전면광고 : 1,200,000원
- 하 단 광 고 : 500,000원
- 하단 1/2 광고 : 300,000원
- 하단 1/3 광고 : 200,000원

- 구 독 료 : 20,000원 / 1년
- 구 독료 입금 계좌
예 금 주: 광주건축사회
계좌번호 : 신용협동조합 131-009-471898

2013 BIM Competition 다녀오다.

10월 말에 한국BIM학회에서 연락을 받았다. 2013 학생 BIM Competition의 심사위원으로 참여를 요청하는 소식이었다. 이유인 즉슨 작년에 참가했던 대상 팀에게 심사위원으로 참여했으면 좋겠다는 학회의 결정에 따른 것이었다. 필자는 작년에 전국에 있는 타 대학교의 대학생들과 Dream팀을 만들어 Competition에 참여했었다. 팀에서 팀장역할로 참여하였고 3개월 동안 2~3주에 한번 씩 서울과 광주를 오가며 주중에도 수시로 화상회의와 SNS, 홈페이지를 통해 소통하며 이뤄낸 성과였다.

2013 학생 BIM Competition의 최종 발표는 11월 23일 오전 10시 한양대학교 제2공학관에서 진행되었다. 최종발표는 사정상 불참하게 된 팀들을 제외하고 16개 팀이 발표를 했다. 1년 사이에 학생들은 어마어마한 성장들을 이뤄냈다.

작년의 필자가 속했던 팀보다 더 뛰어난 팀도 보였고 학부생과 대학원생이 한 팀을 이룬 프로젝트들은 체계적인 구성과 Develop 되는 과정, 세세한 디테일은 타 팀들에 비해 월등하게 앞서는 모습들이 눈에 띄었다.

작년에 비해서 공모전의 취지를 정확히 해석하고 나온 듯 전체적으로 상향평준화 됐다고 생각한다. 물론 BIM에 대한 제대로 된 스터디가 부족한 팀들도 몇몇 보였어 아쉽긴 했지만 그 또한 현재 대학내 BIM교육이 전체적으로 활성화 되어있지 않는 상황 속에서 독학으로 이뤄낸 결과물이라고 하기엔 믿기 어려운 수준이었기에 내년에는 더 큰 성장을 하지 않을까 기대감에 마음속으로 응원하였다.

한팀 한팀 발표가 끝날 때 마다 필자는 팀에 대한 점수와 간단한 심사평들을 적어나갔다. 감히 필자가 심사를 한다는 것이 부담스럽기도 했지만 내가 느꼈던 그대로 평가는 냉철하고 소신 있게 하였다. 치열한 경쟁 속에 그중에서도 유난히 돋보였던 팀들은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싶다.

끝으로 BIM Competition은 타 공모전과는 다른 점이 하나 있는데 프로젝트의 결과물도 중요하지만 3개월이라는 시간동안의 과정까지도 심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특징을 갖고 있다. 팀마다 홈페이지를 개설하여 팀별 진행과정을 오픈하여 심사위원이 이를 체크하고 다른 팀들 간의 경쟁을 한눈에 살펴 볼 수 있는 특별한 시스템을 갖고 있다. 이 때문에 흔히 나를 포함한 대다수의 학생들이 공모전이나 기타 Competition을 진행할 때 최종 마감의 말미에 많은 Output들을 쏟아내게 되는데 이 Competition은 그렇게 진행했다가는 좋은 성적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 대회기간 내내 전체적인 스케줄에 의해서 움직이고 프로젝트의 진행과정을 기록하고 오픈해야 최종 점수에서 좋은 영향을 받는다. 이 시스템은 늘 결과물에 초점이 집중되어 눈에 보이지 않는 과정들은 생각하지 않는 여타 다른 공모전과는 다르다.

물론 BIM이라는 특별함과 공모전의 취지도 있겠지만 목표달성을 위해 과정 하나하나가 얼마나 중요한지 깨우쳐주기 때문에 BIM에 관심 있는 학생들이라면 내년 2014에 꼭 한번 도전하길 바란다.

제10회 광주건축·도시문화제를 다녀오다.



11월 21일 광주에서 개최된 광주건축·도시문화제를 보기 위해 김대중컨벤션센터를 방문했다.

개막하기전날 작품 제출 차 방문해서 한번 둘러보았다. 그때 작품들이 제대로 걸려있지 않아서 몰랐는데 오늘 와서 보니 영역별로 정리되어 있는 모습과 벽을 뽁뽁하게 채운 작품들을 보며 설렘과 기대감에 차 있었다. 가장 먼저

나를 반겨준 것은 “건축 도시 그림그리기대회”의 작품들이었는데 유치원부터 중학생까지의 어린 연령층을 대상으로 한 그림 대회였다. 어린친구들의 눈으로 바라본 건축과 도시의 모습을 흥미롭게 바라보며 저렇게 순수하고 창의적인 생각을 할 수 있을까, 저 나이 때 나는 무엇을 했을까하며 내 자신을 다시 한 번 돌아 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 그리고 내부로 들어가면 바로 옆에는 가우디 작품의 사진전시회가 마련되어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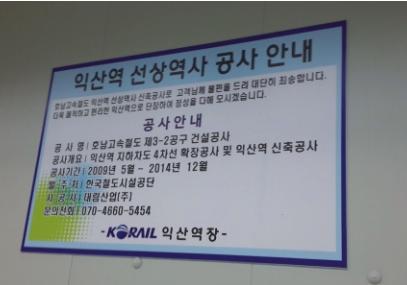
내가 오늘 여길 다시 방문한 이유 중 하나는 가우디작품 전시와 더불어 초청강연회를 듣기 위해서였기 때문에 가우디의 작품을 하나하나 자세히 살펴보았다. 특히 가우디 전시회의 파티션 배경은 검정색으로 되어 있어서 다른 전시공간과는 특별하다는 느낌을 받았고 사진을 보는데 있어서 좀 더 강한 포커싱을 줄 수 있어 눈에 쉽게 들어왔고 “가우디와 구엘”, “가우디와 주택”, “가우디와 종교건축”등의 주제로 전시되어 있어서 이해하기도 쉬웠다.

그 다음으로는 각 학교별로 우수작품들을 전시하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었는데 내가 여기를 방문한 두 번째 목적은 여기 각 학교별 작품들을 보며 성향과 스타일 등을 알고 싶었기 때문이다. 작품들을 보면서 모형에 대한 스케일감과 재료, 패널구성, 형태구성 등이 학교마다 각기 달라서 각자의 색깔을 보고 느낄 수 있는 전시였다. 내내 흥미롭고 재미있게 보면서 약간의 경쟁심과 열등감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이후로는 광주에서 했던 도시재생공모전의 수상작품과 건축공모전의 수상작들이 나열되어 있는 것을 감상하며 다양한 생각들과 아이디어들을 수집할 수 있었고 광주, 전남권에서 했던 현상설계에 관한 작품들을 보며 앞으로의 모습을 상상해 보기도 했다.

이번 광주건축·도시문화제를 보면서 이를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꿈”이라고 하고 싶다. 왜냐하면 다양한 작품과 결실들에서 건축을 하고자하는 사람들의 꿈이 담겨있음을 느꼈으며, 많은 학생들이 이를 보며 새로운 꿈을 꾸며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초석 되었으리라 믿어 의심치 않았기 때문이다.

새로운 역사(歷史), 새로운 역사(驛舍)



인천에서 광주로 가던 한국화약의 화물 열차인 제1605열차는 당시 정식 책임자도 없이 다이어나이트와 전기 뇌관 등 40t의 고성능 폭발물을 싣고 이리역에서 출발 대기하던 중 끔찍한 폭발사고가 일어났다.

당시 수사당국의 발표에 따르면 호송원 신무일이 술을 마시고 잠든 뒤, 추위를 막기 위해 밤에 켜 놓은 촛불이 화약상자에 옮겨 붙은 것이 원인이었다. 원칙적으로 폭탄 및 화약 화물을 싣는 열차는 여객 열차보다 우선순위로 운행이 되고 있으며, 그러한 위험물을 싣는 기차는 신호장, 신호소, 간이역은 물론 모든 철도역 내에 대기시키지 않고 바로 통과시켜야하는 것을 무시한 원인도 있었다.

이러한 허술한 안전 의식이 인재를 불러왔다는 비판을 받았고 이 사건은 익산역의 아픈 역사가 되었다.

이 사건으로 이리역 주변 반경 500미터 이내의 9천여채의 건물이 파괴되었고, 59명의 사망자, 1천명의 부상자, 1만 명의 이재민이 발생하였다. 당시 초등학교이었던 부모님도 13km떨어진 금마에서 땅이 흔들렸다고 아직까지 생생하게 기억할 정도의 끔찍하고 안타까운 사건이다.

그런 이리역이 익산역으로 새롭게 단장하여 2009년까지 익산시민들에게 편의공간으로 제공되다가 KTX가 들어오면서 호남선, 전라선, 군산, 장항선이 분기하는 역으로 호남교통의 관문이 되었다.

현재 익산역은 2009년부터 이어진 공사가 한창인데, 이번 건축시공학2 과목을 수강하면서 현장을 견학하는 기회를 갖게 되었다. 사실 꽤 오랜 시간동안 가설을 타리에 가려진 익산역의 모습은 나에게 굉장한 호기심으로 다가왔고 드디어 그 현장을 볼 수 있다는 생각에 설렘을 가득 갖고 견학했다.

익산역은 기존에 있던 지하차도를 확장하는 공사와 함께 선상역사, 기존역사 리모델링, 창인동과 중앙동을 잇는 통로로 크게 네 부분의 공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현재 지하차도 확장공사는 완성단계를 밟고 있고 이제는 선상역사를 짓는 과정중에 있다. 견학을 하던 중 현장기사님에게 충격적인 사실을 들었다. 선로의 높은 전류가 흐르는 전선 때문에 기차가 다니는 구간에는 공사를 할 수 없어 부득이하게 야간에 공사가 이뤄진다는 것이었는데, 그런 노고도 알지 못하고 공사가 지나치게 오래 걸린다고 생각했던 것이 부끄러웠다.

완공된 익산역은 내년 말쯤에 새로운 역사를 쓰게 될 것이라고 한다. 아픈 역사를 딛고 일어나 호남권 교통의 요충지로 돈뎀하게 되기까지 많은 분들의 수고와 함께했다는 것을 기억하며 그 때를 기다려본다.

목포대학교 산업기술대학원 한옥학 전공신설 / 신입생 모집

—오는 12월 16일부터 1월 17일까지 입학원서 교부 및 접수, 학사학위 취득자 지원 자격

국립목포대학교 산업기술대학원(원장 : 김지민 교수)에서는 국가 최고의 ‘한옥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한옥학’전공을 신설하여 2014학년도 신입생을 모집한다.

관심 있는 독자 여러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1)모집과정 : 석사학위 과정(공학석사, 한옥학)

2)지원자격

가. 국내, 외 대학에서 학사학위 취득자(취득예정자 포함)

나. 전향과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교육부장관이 인정 한 자

※학사 학위과정의 출신학과(전공)에 제한을 두지 아니함

※석사학위 취득 후 일반대학원 박사과정 입학 가능 (일반대학원 석사과정과 동일)

3) 전형 일정 및 장소

▶입학원서 교부 및 접수 : 2013. 12. 16 (월) ~ 1. 17 (금)

/ 목포대학교 도림캠퍼스 기술대학원 행정실

▶구술고사(면접) : 2014. 1. 28 (화) 14:30

/ 목포대학교 도림캠퍼스 각 지정 고사실

▶합격자 발표 : 2013. 2. 7 (금) 예정 / 산업기술대학원 홈페이지

4)장학제도 및 특전

▶수업료 및 기성회비 장학금 : 성적 우수자 약간 명

▶학위과정 : 논문(4학기) / 무논문(5학기) 학위과정 중 선택 가능

▶출장강의 : 입학자 수가 일정 수 이상일 경우

5)입시문의전화

▶Tel : 061-450-2404 / 2405 ▶H.P : 010-3186-7192

대한건축학회 광주·전남지회, 학술세미나 개최

－ 지난 12월 4일 조선대에서 ‘광주전남 지역 건축 문화재의 발전방향 모색’이란 주제로...



대한건축학회 광주·전남지회(회장 목포대 김지민 교수)가 주최하고 대한건축학회 광주·전남지회 건축역사분과위원회가 주관한 학술세미나가 지난 12월 4일 조선대학교 제2공학과 1층 세미나실에서 개최됐다.

이날 세미나는 ‘광주전남 지역 건축 문화재의 발전 방향 모색’이란 주제로 진행되었는데, 주제발표로 ‘광주전남지역의 건축문화재 보수설계 현황과 발전방향-디딤 건축사사무소 장진영 대표’와 ‘광주전남지역의 건축문화재 보수공사 현황과 발전방향-송도건설 김정연 상무’, ‘광주전남 지역의 건축문화재 관련 학술연구 현황과 발전방향-순천대학교 건축학부 남호현 교수’의 내용이 발표됐다. 이어 주제 발표 후 자유토론 시간을 갖고 광주전남 지역건축문화재의 발전 방향에 대해 열띤 토론이 진행됐다.

광주광역시와 광주디자인센터, 글로벌 디자인도시 비전 선포 가져

－ 지난 11월 26일 광주디자인센터에서... 제1회 광주디자인포럼도 개최



광주광역시와 (재)광주디자인센터는 지난 11월 26일 오후 2시 광주디자인센터에서 글로벌 디자인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비전 선포와 제1회 광주디자인포럼을 개최했다.

이 행사는 그동안 광주비엔날레 창설 20주년과 2015년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개관, 세계 최초 디자인비엔날레 창설, 전국 최초 지역디자인센터 건립 등을 통해 지역 디자인을 선도해온 광주시가 세계 최대 규모의 디자인 축제인 2015국제디자인엔맥총회 유치를 계기로 국제적인 디자인 도시로 도약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날 행사에는 강운태 시장과 각계인사와 시민, 학생 등 500여명이 참여했다.

포럼에서는 정국현 서울ddp총감독(전 삼성전자 디자인경영센터 부사장) 등 국내 전문가들이 ‘지속가능한 인본디자인’을 주제로 광주시의 정체성을 담아낼 수 있는 디자인의 방향성을 제시하기도 했다.

광주시와 디자인센터는 ‘광주디자인포럼’을 추진하면서 광주를 중심으로 아시아권 디자인네트워크 구축, ida와의 연계협력 방안, 국제적인 디자인도시로서 실천과제 및 정책 발굴 등 발전방안을 실천해 나갈 계획이다.

광주광역시, 도시디자인 전문가 초청강연회 개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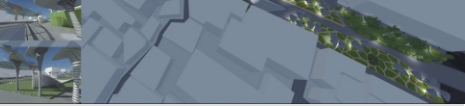
－ 지난 12월 3일, ‘인본디자인을 위한 도시디자인 전략과 과제’로

광주광역시는 지난 12월 3일 시청 3층 소회의실에서 ‘인본디자인을 위한 도시디자인 전략과 과제’라는 주제로 양도식 영국 도시건축 어번플러스마 소장을 초청해 강연회를 개최했다.

이번 강연회는 광주시가 인본디자인도시 조성과 관련, 시민들의 도시디자인에 대한 이해와 마인드 확산을 위해 올해 들어 네 번째로 개최하는 전문가 초청강연이다. 양도식 소장은 이날 강연에서 인본디자인에 대한 단상, ‘도시디자인’이라는 수단, 인본디자인의 전략과 과제에 대한 전문가의 시각을 전달했다.

(사)광주건축단체연합회, 광주 건축공모전 수상작 발표

－ 우수상에 광주대학교 건축학과 조찬민, 정해연 학생의 ‘새로운 광장, 새로운 길’



■ 우수상

접수번호	성 명	소 속	작품명
005	조 찬 민 정 해 연	광주대학교 건축학과	새로운 광장, 새로운 길 Anewwayofthinking

■ 특선

접수번호	성 명	소 속	작품명
001	이봉주	(주)유태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	꿈의 거리 DreamStreet
002	이남수	목포대학교 건축학과	도시의중정(中庭)비움의마당에시간을담다
003	강수현, 문정윤	전남대학교 건축학과	네트워크라인 NETWORKLINE
004	이인원	홍익대학교 일반대학원 건축학과	사람들이 스며드는 거리 Thastreetpermeatedwithpeople
006	정다정	조선대학교 건축학과	OPEN THE ROAD

(사)광주건축단체연합회는 지난 11월 16일 전국 건축공모전 수상작을 다음과 같이 발표했다.

우수상 1작과 특선 5작을 선정하였으면 우수상에는 광주대학교 건축학과 조찬민, 정해연 학생의 ‘새로운 광장, 새로운 길’이 선정됐다.

제10회 광주건축·도시문화제 사진으로 보는 이모저모

－ 광주광역시 건축도시 문화의 발전방향성을 모색하는 자리가 돼

▣ 전야제 행사(건축인의 밤)



지난 11월 20일 라마다플라자 광주호텔에서 제10회 광주건축·도시문화제 전야행사로 열린 건축인의 밤에 많은 내빈이 참석했다. 좌측부터 광주광역시 오형국 행정부시장, 광주광역시의회 조호권 의장, 대한건축사협회 조형식 부회장 등이 축사를 통해 건축인의 밤을 축하했다. 이 외에도 광주디자인센터 장상근 원장과 광주광역시도시공사 홍기남 사장, 전라북도건축사회 김남중 회장, 전라남도건축사회 국원식 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건축인의 밤은 여러 부분의 시상식이 열렸다. 제17회 광주광역시 건축상 수상자 시상과 제10회 광주건축·도시문화제 기념 공로패 시상, 도시재생아이디어공모전 시상, 광주건축공모전 시상, 자랑스런 건축인 선정 및 추대패 전달 등이 진행됐다.

좌측부터 광주건축상 주거부문 금상으로 선정된 동구 운림동 주택 설계자 미가온 건축 이순미 건축사와 시공사 관계자가 오형국 행정부시장과 함께 수상 기념 촬영, 공로패 수상자인 광주디자인센터 장상근 원장과 지에이 건축사사무소 이창을 건축사 수상 기념 촬영, 자랑스런 건축인으로 선정된 유연욱 건축사에게 추대패가 전달되고 있는 사진이다.

▣ 본행사(개막식 및 진행행사)



개막식이 개최된 11월 21일에는 광주광역시 강운태 시장과 광주광역시의회 조호권 의장이 직접 참석하여 개막식을 축하해 주었다. 좌측부터 축사를 하고 있는 강운태 시장 그리고 조호권 의장, 제10회 광주건축도시문화제의 개막식을 알리는 테이프 커팅식 기념 촬영.



다양한 행사가 진행되었는데 광주특별전으로 개최된 ‘광주에서 가우디를 만나다’와, 제17회 광주광역시 건축상 수상작품 전시회, 광주전남 현상설계당선작 전시회, 이동희 교수의 건축사진 초대전, 광주 도시재생아이디어 공모전 입상작 전시, 전국 건축공모전, 대학생 우수 건축작품전, 건축·도시그림그리기대회, 건축 도시 사진·공모전 입상작 전시 등이 진행됐고, 건축에 관심 있는 수많은 시민들과 대외인사들이 방문했다.



전시행사 외에도 여러 가지 기타행사가 개최되었는데 좌측부터 김대중컨벤션센터 세미나실에서 개최된 가우디 특별전 초청강연회와 그림그리기대회 시상식, 어린이 체험교실 등이 진행됐다. 특히 가우디의 설계이론과 바르셀로나 도시전략에 대한 주제로 열린 세미나에는 200여명의 청강자들이 몰려 성황을 이뤘다.

광주건축사회 안길전 회장 등 회원 30여명, 연말 봉사활동 나서

— 지난 12월 12일 동구 천혜경로원에서 150여명 장기요양자들에게 중식제공 및 배식봉사



광주건축사회는 지난 12월 12일 연말을 맞아 광주 동구 학동에 위치한 천혜경로원에서 봉사활동을 펼쳤다.

이날 봉사는 안길전 회장을 비롯한 강필서, 정명철 부회장 등 임직원 및 광주지역 건축사회원 30여명이 동참했다. 150여명의 장기요양 1, 2등급 판정자들에게 250여만원 상당의 중식을 제공하고, 봉사 참가자들은 직접 배식봉사를 진행했다.

안길전 회장은 “이번 봉사활동을 통해 몸이 불편하고 힘든 주변의 이웃들에게 더욱 가까워지는 계기가 된 것 같다”며 “앞으로도 이와 같이 이 사회의 한 부분을 담당하는 전문 직업인으로서 사회적 역할과 소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광주건축사회는 약 4개월간 사무국에 불우이웃돕기 모금함을 비치해 모금한 금액 27만원을 이번 봉사활동에 사용했다고 밝혔다.

광주건축공사감리협의회, 2013년 제1회 임시총회 개최

— 운영규정 및 세칙 개정의 건 원안 의결, 2014년 1월 1일 시행 확정



지난 12월 10일 광주건축사회관 5층에서 광주건축공사감리협의회 제1회 임시총회가 개최됐다.

이날 임시총회는 2014년 1월 1일 시행을 앞두고 개최되는 총회로 총회전 이미 많은 건축사회원으로부터 관심이 집중됐다.

재적인원 238명 중 123명이 참석했으며 이날 총회의 주요 부의안건으로 운영규정 및 세칙 개정의 건이 상정됐다. 열띤 토론 끝에 원안 의결하였으며,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적용외대상을 건축사 본인 또는 소속법인 소유 건축물(건축물 사용 승인시기 때 명의변경 없는 것에 한하여 연 2건으로 한정)로 하고, “광주광역시건축공사감리건축사협회의”를 “광주광역시건축공사감리협의회”로 변경, 임원의 선출 및 임기를 ‘임원 임기 2년’, ‘회장, 부회장, 이사, 감사’를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감사”로 변경했다.

또한 광주광역시 건축공사감리협의회 운영규정 및 세칙 내용중 감리자 선정·계약 및 감리비 수납 관리 등을 별도 기준으로 제정하여 운영하는데 동의했다.

한편, 이날 정명철 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수많은 시행 준비단계를 한단계씩 밟아온 결과 드디어 감리공영제 시행을 눈앞에 두고 있다”며 “원활한 시행을 위해 스스로없이 동의해 주신 많은 건축사 회원님들께 머리 숙여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다”고 전했다.

※건축공사감리협의회 공지사항 : 설계, 감리 수탁 신고 유예기간 설정

가)유예기간 : 설계, 감리 수탁 신고 건 중 2014. 3. 31까지 건축 허가 접수된 건에 한하여 적용

나)증빙서류 제출

서 류 제 출 : 설계·감리 수탁신고 현황

제출마감일 : 2013. 12. 31 (화)까지 / 제출방법 : 방문 제출

감리공영제 감리자 결의문

우리 감리공영제 감리자 일동은 광주광역시 건축공사감리협의회가 소규모 건축물을 대상으로 건축주와 건축사가 동의하는 건에 한해 자율적으로 설계와 감리를 분리하는 공익 차원의 감리공영제를 시행함에 있어서 감리업무를 철저히 수행함은 물론, 건축공사의 위법발생을 예방하고 건축물의 안정성과 품질을 향상시켜 150만 광주시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감리공영제 감리자로서 150만 광주시민의 재산보호를 위한 사회적인 소명과 책임의식으로 감리공영제 업무에 임한다.

하나. 감리공영제 감리자로서 광주광역시의 문화유산인 건축물의 안정과 품질향상을 위하여 건축법령을 준수하여 철저한 감리업무를 수행한다.

하나. 소규모건축물 감리공영제 감리업무와 관련하여 건축사의 양심으로 어떠한 경우라도 사적인 대가나 약속을 받지 않고 공명정대하게 업무를 처리할 것을 다짐한다.

하나. 감리자이자 건축사로서 협회 회원의 명예와 의무를 다하여 협회의 건축문화 발전을 위한 자정노력에 앞장서서 노력할 것을 다짐한다.

2013. 12. 10

광주건축공사감리협의회 건축사 ○ ○ ○

전라남도건축사회, 2013 전남건축인의 밤 개최

— 지난 12월 11일 순천에코그라드 관광호텔에서 개최, 순천 시장 등 주요인사 참석



2013 전남 건축인의 밤 행사가 지난 12월 11일 순천에코그라드 관광호텔에서 개최됐다.

이번 전남 건축인의 밤 행사는 건축기본법 제정·시행으로 건축의 공공적 가치가 구현되고, 일반국민들의 건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에 건축문화 발전에 기여하는 전남 건축인들의 사명감과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건축인 상호간의 협력관계를 구축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계획됐다.

이날 건축인의 밤 행사에는 조충훈 순천시장 등 주요인사들이 참석하였고, 광주건축사회 안길전 회장을 비롯해 관련 인사들도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전남건축사회 국원식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전남지역의 건축문화 창달을 위해 밤낮으로 수고하고 있는 우리 회원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고 밝히며 “오늘 이 자리가 전남건축인들의 단합과 화합을 주도하는 장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광주건축사회 심상봉 前회장, 광주고등법원으로부터 감사장 받아

— 지난 12월 9일, 광주프라도호텔에서 조정위원으로 분쟁해결에 이바지한 공로



광주건축사회 심상봉 前회장((주)건축사사무소 에이디 그룹)이 지난 12월 9일 광주프라도호텔에서 광주고등법원으로부터 법원조정위원으로서 헌신적인 자세로 분쟁해결에 이바지한 공로로 감사장을 수여 받았다.

심상봉 건축사는 광주고등법원 조정위원과 더불어 광주지방검찰청 검찰시민위원, 형사조정위원, 법무부 사회통합위원을 맡고 있다.

전북 전주시, 전국에서 최초로 도시재생 거점센터 건립

— 2015년 완공 목표, 전국 지자체 파급할 도시재생의 성공모델 개발

전라북도 전주시는 지난 12월 10일 노송동 신축부지 현장(완산구 서노송동 735-13번지)에서 송하진 전주시장, 이명연 전주시의회 의장을 비롯한 전주시의회 의원들과 지역 주민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주 도시재생 거점센터 건립을 위한 착공식을 개최했다. 도시재생 거점센터가 들어서는 노송동은 13년째 익명의 기부자의 선행이 이어지고 있어 지역내외에서 높은 관심을 받고 있는 지역이다. 전주시는 “얼굴없는 천사”라는 지역 자산을 활용해 도심 노후주거지 활성화를 위한 “천사마을 가꾸기”사업을 계획하고 지난 2010년 12월 국토부 R&D 도시재생 테스트베드를 유치해 본격 추진하게 됐다.

이번 건립되는 센터[(주)길 건축사사무소 이길환 건축사 설계]는 3748㎡부지에 연면적 4761㎡(지하1층, 지상3층) 규모로 국비 45억을 포함한 90억원의 사업비가 투자되며, 얼굴없는 천사의 날개를 형성화해 오는 2015년 완공을 목표로 건립될 예정이다. 주요 기능은 지역이 가지고 있는 자산을 기반으로 지역공동체의 창의적 노력이 더해져 사회·경제·문화적으로 도시 기능을 회복하는 통합적 도시재생의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한편 시는 앞으로 도시재생 거점센터가 그 기능을 최대한 활성화 할 수 있도록 세부 기능도입과 운영 방안에 대한 용역을 수행, 전문가와 주민 의견 수렴을 거쳐 주요 기능 등을 확정해 나갈 계획이다.

전북 군산시 ‘근대문화도시 조성사업’ 대한민국 경관대상에서 대상 수상

— 지난 12월 5일 서울 건설회관에서 열린 시상식에서 특색있는 경관만든 점높은 평가받아

전라북도 군산시 근대문화도시 조성사업이 제1회 국토 경관의 날을 맞아 열린 대한민국 경관대상에서 ‘대상’을 수상했다.

지난 12월 5일 서울 건설회관에서 열린 시상식에서 군산시의 근대문화도시 조성사업이 근대건축물을 활용하여 쇠퇴해 가는 원도심에 새로운 랜드마크를 조성하고, 특색 있는 경관을 만든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아 대상의 영예를 안았다.

국토교통부가 주최하는 2013년 경관대상은 지난 10월 전국 229개 지자체와 공공기관으로부터 우수 경관사례를 응모 받아 1차 서류심사, 2차 현장심사, 3차 최종심사를 거쳐 수상자를 선정했다. 군산의 원도심은 1899년 6월 2일 조계지(외국인 거주지역)로 설정된 후 일제가 쌀 수탈의 거점지로 삼아 근대기 아픈 역사가 고스란히 남아 있는 곳으로 조선은행, 일본 제18은행, 군산세관, 일본식 사찰 등을 비롯해 170여 채의 근대문화유산이 밀집되어 있다.

‘근대문화도시 조성사업’은 2014년까지 654억을 투자해 원도심이 간직한 근대문화유산을 활용, 근대역사 학습공간, 체험공간, 문화예술 활동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제15회 광주건축사 미술동호회 미술전 개최

－ 오는 12월 19일 목요일까지 광주 북구청 1층 갤러리에서 진행



은 시민들에게 예술적 기쁨과 휴식을 선사해 주는 행사로 자리매김했다”고 밝히며 광주건축사 미술동호회에 감사함을 표했다.

광주건축사회 안길전 회장은 “다수의 건축 작품활동으로 힘들고 지칠 때 잠시나마 휴식의 공간을 마련해 주는 이러한 미술전이야말로 우리 회원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자리가 되었다”고 밝히며 “이번 미술전이 우리 건축사 미술동호회 회원 여러분의 건축작품 활동과 미술 작품활동 모두 흥하는 에너지의 원천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News 광주 건축사회 동정

* 입회

- － 박민주 건축사 / 덕인 건축사사무소
광주 광산구 장신로 337 3층(신창동)
- － 이영진 건축사 / 창대 건축사사무소
광주 서구 민주로6번길 36 306(쌍충동)
- － 이경탁 건축사 / 프라이م 건축사사무소
광주 북구 무등로 281-4(중흥동) 2층

* 전입

- － 배석순 건축사 / 동서 건축사사무소
광주 북구 우치로 383번길 16

* 변경(소재지)

- － 이원일 건축사 / 이엘 건축사사무소
광주 동구 동명로 26번길 15-1 수하빌딩 2층

* 결혼

- － 김권수 건축사 / (주)보림 건축사사무소
장녀 결혼 / 11월 16일 (토)
- － 김 곤 건축사 / 선택 건축사사무소
자녀 결혼 / 12월 7일 (토)

* 부고

- － 이종순 건축사 / 공감 건축사사무소
부친 별세 / 11월 21일 (목)

News 전남 건축사회 동정

* 변경(소재지)

- － 김선수 건축사 / 제이에스 건축사사무소
전남 신안군 암해를 천사로 899-0
- － 이현조 건축사 / (주)리가온 건축사사무소
전남 화순군 화순읍 대교로 20-2(2층)

* 부고

- － 손병완 건축사 / 영우 건축사사무소
모친상 - 11월 28일

News 광주·전남·전북 12월 지역축제 안내

- ▶ 12. 07 (토) ~ 12. 30 (월)까지 제1회 목포 크리스마스트리 문화축제 -전남 목포시 로데오타운 광장
- ▶ 12. 13 (금) ~ 14. 01. 12 (일)까지 2013애기동백 겨울꽃축제 -전남 신안군 천사섬 분재공원
- ▶ 12. 13 (금) ~ 14. 02. 02 (일)까지 제11회 보성차밭 빛 축제 -전남 보성군 봇재다원 등
- ▶ 12. 21 (토) 2013광주 청소년 상상페스티벌 -광주 동구 금남로 차없는거리
- ▶ 12. 24 (화) ~ 14. 02. 09 (일)까지 제3회 지리산남원 바래봉 눈꽃 축제 -전북 남원시 바래봉 일원
- ▶ 12. 31 (화) ~ 14. 01. 01 (수)까지 2014여수항일암일출제 -전남 여수시 임포마을
- ▶ 14. 01. 03 (금) ~ 14. 01. 12 (일)까지 2014무주남대천 얼음축제 -전북 무주군 남대천 일원
- ▶ 14. 01. 05 (일) 제9회 여수마라톤대회 -전남 여수시 여수세계박람회 행사장

법무법인 서석

광주건축사회 고문변호사 윤 춘 주
법무법인 서석 변호사

새로운 일을 추진할 때와
문서에 서명하기 전에
변호사와의 전화 한 통화로
많은 문제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 취급업무 •

공증, 특허, 상표, 건설, 의료, 행정, 파산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동 715-2 법조타운 206호
전화 : 062-226-7400 팩스 : 062-225-5310
홈페이지 : nicelawyer.co.kr / 윤변호사.com

News 전북 건축사회 동정

* 정정(11월호 12면)

- － 백우현 건축사 / 건축사사무소 백현
→ “건축사사무소 백현”으로 정정합니다.

* 변경(사무소명, 소재지)

- － 최근영 건축사 / 조이플 건축사사무소
전주시 완산구 흥산4길 10(효자동3가)

* 변경(사무소명, 소재지)

- － 김경옥 건축사 / (주)목양 종합건축사사무소
전주시 덕진구 추탄로 38(덕진동2가)
- － 임순호 건축사 / 금호 건축사사무소
전주시 완산구 신봉4길 3(효자동1가)

* 결혼

- － 방성식 건축사 / 건축사사무소 탐
차녀 결혼 / 11월 23일 (토)

* 부고

- － 성두호 건축사 / 우원 건축사사무소
장모상 / 11월 23일 (토)
- － 장우섭 / 모든 건축사사무소
배우자상 / 12월 4일 (목)

* 기타

- － 이태원 건축사 / 예인 건축사사무소
소방방재청장 표창 수상 / 11월 12일 (화)
- － 이길환 건축사 / (주)길 건축사사무소
호텔리스예식장 개업(구 웨딩캐슬)/11월12일(화)
- － 이길환 건축사 / (주)길 건축사사무소
제17회 전북예총하림예술상 수상 - 12. 13(금)

건축문화 사랑

2009년 11월 10일 창간

발행처 광주광역시건축사회
발행인 안길전, 국원식, 김남중
편집인 서재형
전담기자 광승국
편집위원 강필서, 신영은, 박신남, 정명환, 정관석, 강동영, 김미영, 이광영, 백재봉, 윤미순, 박종호, 양우현

등록번호 광주광역시 라00144
간별 월간
등록일자 2010-01-25
인쇄·제작 원일인쇄 T.062)228-7813
광고신청 T.062)521-0025



표 | 지 | 설 | 명

2013년 올 한해
동안 건축계는

2014년 갑오년은 건축계에 따듯
한 바람이 부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대통령령 제24909호, 2013.12.4)

1. 개정이유

주택의 수요 변화를 고려하여 새로운 주택유형으로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을 도입하고, 장기수선 충당금 및 하자보수보증금의 용도 외 사용을 금지하며, 입주자 등이 주택관리업자에 대한 만족도 평가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주택법」이 개정(법률 제11871호, 2013. 6. 4. 공포, 12. 5. 시행)됨에 따라,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의 건설기준을 정하고, 하자보수보증금의 용도를 구체적으로 정하며, 주택관리업자에 대한 만족도 평가와 그 결과의 공개에 관한 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그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의 건설기준 등(안 제2조의3 신설)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은 세대별로 구분된 각각의 공간마다 별도의 욕실, 부엌과 현관을 설치하고, 주거전용면적이 14제곱미터 이상이 되도록 하는 등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의 건설기준을 정하고,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은 그 구분된 공간의 세대에 관계없이 하나의 세대로 산정하여 부대시설, 복리시설 등의 주택건설기준을 적용하도록 함.

나. 하자보수보증금의 용도(안 제60조의2 신설, 안별표 13)

하자보수보증금의 용도를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의 하자 판정 또는 법원의 재판 결과에 따른 하자보수비용 등으로 한정하고, 하자보수보증금을 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명확하게 정하여 하자보수보증금의 사용과 관련된 입주자 등과 사업주체 간의분쟁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함.

다. 주택관리업자에 대한 만족도 평가(안 제81조의2 신설)

국토교통부장관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만족도 평가를 실시하고, 해당 주택단지에서 50세대 이상이 만족도 평가에 참여한 경우 등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여 주택관리업체의 공동주택 관리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함.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대통령령 제24910호, 2013.12.4)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의 성능등급 인정의 유효기간 및 수수료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주택법」이 개정(법률 제11871호, 2013. 6. 4. 공포, 12. 5. 시행)됨에 따라,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성능등급 인정의 유효기간을 성능등급 인정을 받은 날부터 5년으로 하고, 성능등급 인정에 드는 수수료를 인정 업무와 시험에 사용되는 비용으로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상업지역에서 부대시설이 없는 호텔의 경우만 주택과의 복합건축이 허용되었으나, 상업지역, 준주거지역, 준공업지역에서 유흥주점 영업시설 등을 제외한 일부 부대시설을 포함한 호텔시설과 주택의 복합건축을 허용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공고 제2013-1013호, 2013.12.3~2014.1.12)

1. 개정이유

“제16차 경제관계장관회의” 결과에 따라 가스·축냉식 냉방방식 적용대상을 중앙집중냉방방식이 아닌 냉방방식까지 확대하여 건축물의 전력부하 관리를 강화하고자 하며, 배관설비의 누수 및 노후 등에 따른 배관수리 및 교체 시 유지관리가 용이한 구조로 설치하도록 배관설비의 기준을 보완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가스·축냉식 냉방방식 확대(안 제23조)

중앙집중냉방방식이 아닌 냉방방식까지 적용대상 확대

나. 배관설비의 유지관리 용이성 보완(안 제17조)

배관설비를 콘크리트에 묻는 경우 배관설비의 누수 및 노후 등에 따른 배관수리 및 교체 시 유지관리가 용이한 구조로 설치하도록 배관설비의 기준을 보완

다. 음용수용 배관설비 기준의 인용 법령근거 변경사항 반영 (안 제18조)

저수조 설치기준 및 위생안전기준의 인용 법령근거가 변경되어 반영

기타 자세한 사항은 법제처(<http://www.moleg.go.kr>) 또는 대한건축사협회(<http://www.kira.or.kr>) 법령정보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축문화 사랑

신문 발전기금을 모집합니다!

- ▶ 발전기금 : 1만원부터
- ▶ 후원방식 : 신탁 131-009-471898 (예금주 : 광주건축사회)

장 철	동일교역(주)	900,000원
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공제조합	1,000,000원
대한건축사협회		500,000원
정명철	에이엠지그룹 건축사사무소	500,000원
전북 고창건축사회		350,000원
전남 장흥건축사회		350,000원
13개 시·도 건축사회		각 200,000원
(주)아톰파킹		200,000원
윤춘주	법무법인 서석	100,000원

건축문화 사랑 원고모집

건축문화사랑에 게재할 원고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독자사진/지역소식/동호회소식/책/수상/수필/작품노트/건축작품/독자만평/기타(기행문, 시, 문학작품, 미담, 학위 취득, 교수 임용, 인사이동 등 회원동정)

- 원고마감 : 매달 25일
문 의 : 광주건축사회 (Tel : 062-521-0025)
E-mail : gikira@empal.com
1. 건축작품 및 기타를 제외한 모든 원고는 소정의 원고료를 지급.
 2. 원고에는 작가의 사진과 사무소명, 직책 및 약력을 첨부.
 3. 원고는 아래 한글, 명조체, 10포인트로 작성, 사진은 디지털파일로 제출.

지구를 아끼는 작은습관 나부터!

친환경 3종 세트(베이킹소다, 구연산, 과산화탄소)를 활용하여

◎ 베이킹 소다

1. 치아관리하기

양치질을 할 때 베이킹 소다가 효과적입니다. 치아 건강에 관심이 많다면 베이킹 소다가 어떻게 이용는지 잘 익혀 두세요.

- 칫솔질 할 때는 손바닥에 베이킹소다를 약간 뿌린 후 이것을 젖은 칫솔에 묻히고 보통 때처럼 칫솔질을 합니다. 칫솔에 베이킹 소다를 조금 묻히고 치약과 함께 칫솔질을 하면 더욱 개운하고 잘 닦인 느낌을 느낄 수 있습니다.

- 잇몸에 통증이 있을 때는 베이킹소다를 물에 섞어서 걸쭉하게 만든 후 이것으로 잇몸을 부드럽게 두드립니다. 잇몸 질환 초기에 베이킹소다로 만든 가정용 치약을 이용해서 규칙적으로 칫솔하면 효과적입니다.

2. 탈취제거

음식물을 보관하는 냉장고 에서는 여러 가지 냄새가 섞이기 쉽죠? 이런 냄새로 인해 신선도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베이킹 소다는 알칼리성 물질로 냄새를 없애주는 성질이 있습니다.

- 냉장고에서 냄새가 날 때 베이킹소다를 작은 그릇 또는 상자에 넣어주세요. 나쁜 냄새를 없앨 수 있습니다. 3~4개월에 한번씩 베이킹소다를 넣은 그릇 또는 상자를 교체해 주세요.

- 야채를 신선하게 유지하고 싶을 때 냉장고 야채보관실에 베이킹소다를 뿌려주고 종이나 천으로 덮어 주세요. 3개월에 한번씩 반복하면 야채 보관실을 더욱 신선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탈취력이 떨어져 교체하신 베이킹소다는 청소용으로 가능해요. 1석 2조^^*)

◎ 구연산

구연산은 감귤류에 함유되어 있는 산성성분으로 균의 수를 죽이는 역할을 합니다. 구연산수를 만들어 손이 자주 닿지 않는 곳을 손쉽게 소독해 주세요.

- 생활 속 소독이 필요한 곳 : 손잡이, 키보드와 마우스, 리모컨, 쿠션, 피아노건반 등

- 구연산수를 적신 수건이나, 스프레이 병에 구연산수를 담아 사용해주세요. 가방속에 구연산수를 휴대하여 가지고 다니면서 세균이 노출되어 있는 곳으로부터 보호할 뿐만 아니라 손 세정으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과탄산소다(산소계 표백제)

친환경 세탁세제 산소계표백제로 아기 옷을 빨아보세요~! 안심하고 세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탁할 때 베이킹소다를 넣으면 더욱 깨끗하게 빨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나요? 옷에 제거하기 힘든 얼룩이 묻었을 때에도 베이킹소다가 해결해 줍니다!

또한 구연산수는 섬유유연제 기능을 합니다. 친환경 세제 3총사로 세탁해 보세요.

- 얼룩제거에는 온수 20리터와 산소계표백제 10g을 넣고 15~30분 담군뒤 헹궈줍니다.

- 턱받이 세척에는 오염된 부분에 베이킹소다를 뿌리고 문지른 후 잠시 놓아둔 뒤 산소계표백제로 빨아줍니다.

* 요즘 주부들 사이에 먹거리는 물론이고 화장품이나 각종 세제에도 친환경, 자연주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특히 요즘 아이들 아토피가 워낙 흔하다 보니 화학성분 많이 들어간 제품이 괜찮을까, 걱정도 되고 독한 세제로 청소하다보면 주부들 손도 거칠어지는 것 같습니다. 천연 3종 세트로 지구도 살리고 우리가족 건강도 돌본다면 더 좋겠지요? ^^

「멀티플라이어」

한줄평 : 멀티플라이어와 디미니셔, 나는 과연?

대성 건축사사무소

1명이라도 관리해야할 직원이 있는 초급관리자부터 관리자들의 역할은 늘 머리가 아프기 마련이다. 어떤 업무를 분장하고 어떻게 동기를 부여하여 팀의 성과를 높일 수 있을 지 고민이 많기 때문이다. 그런 관리자라면 누구든 읽어보라고 권장하고 싶은 책으로, 조직을 운영하는 사람이 어떤 식으로 운영하여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는 기본서라고 말할 수 있겠다.

조직의 리더는 어떤 식으로 운영하여야 하는가?

1. 우수한 자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2.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어야 한다.
3. 도전할 수 있는 영역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
4. 토론장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
5. 주인의식과 책임감을 부여하여야 한다.

멀티플라이어가 가져야 하는 5가지 법칙을 강조하였는데, 멀티플라이어와 디미니셔의 차이가 무엇인지 알고 있어야 하고 근본적으로 자신이 속한 조직의 특성을 알고 어떤 식으로 조직을 이끌어 가야 하는지를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참으로 과연 나는 어떤 리더인가 그리고 주변 사람들과의 차이가 무엇인지 왜 그렇게 하는지 알게 되는 근본을 알게 해준다는 것으로, 깊은 고민을 해 보지 않으면 안된다.

리더와 조직을 어떤 식으로 조합하여야 하는지를 알아야 하고, 기본적인 리더는 조직의 근본을 파악하여야 한다. 멀티플라이어는 지렛대 효과를 거두기 위한 곱셈의 논리를 거둘 수 있어야 함은 물론, 가장 중요한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리더의 생각은 최소한의 이야기만을 하여야 함을 설명하였다. 꼭 관리자만이 아닌 조직의 한 구성원으로써의 조직 내 원만한 조화를 위해서는 구성원 모두가 멀티플라이어의 역할이 필요하다 할 수 있겠다. 참으로 여러 사람에게 권하고 싶은 책이다.

사실 이 책을 읽으면서 많이 놀랐다. 20년이란 직장생활 동안 내가 겪어온 많은 리더들의 모습과 지금의 내 모습이 자연스럽게 떠올랐기 때문이다. 책장을 넘기며 진정한 리더의 모습이 무엇인지 자연스럽게 머리속에 새길수 있었다.

물론 저자가 말하는 멀티플라이어의 모습을 모두 갖춘다는 건 아주 어려워 보인다. 인재를 끌어들여 최대한 활용하

나그네

전라남도건축사회

그렇게 보고 싶은 사람도 없고

가슴 설레는 사람도 없고

푸른 하늘을 보고도

아무런 생각도 없는 것이

오늘 하루가 무사하면 그만이고

어쩔 수 없는 내일은 오고

그저 멍하니 바라보는 세상 속을

눈길 한번도 주지 않는

어두운 터널 속을 걷고 있다

지구가 도는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어도

언제나 그 자리인 것은

참으로 평안한 일이다

가슴속에 쌓인 무게를 털어내고

가벼워진 몸으로

세상 속에 묻히고

말하고 싶지 않은 사연이기보다는

그냥 담아두고 싶은 추억으로 남아

그림자처럼 그렇게 살고 싶다



서울 이화마을

도시재생의 열기가 뜨겁다.

살아온 기억, 생활의 흔적을 간직한 채 새로운 삶을 담아내기...

기존의 역사에 새로운 역사를 더해 나가기... 건축에서 비롯한다.

건축사사무소 사람 신영은 건축사(광주)



가을속으로

초겨울을 앞두고 어느 노부부의 늦가을 정취 나들이...

노부부의 웃자림과 가을 속 배경에서 떠나는 계절과 다가오는 계절이 공존하는 듯...

2013년 선운사 도솔천 / 촬영 : 임낙관(산여울)

2013 건축문화사랑 신문 게재, 현상설계 당선작 전시회

건축문화사랑에서는 독자들에게 올 한해 동안 게재된 광주·전남·전북·지역 현상설계 당선작품을 한 지면에 볼 수 있도록 정리하였다.



2013년 1월(38호)
신안국민체육센터 건립 설계공모 당선작
(주)종합건축사사무소 류기람건축 류연창 건축사



2013년 3월(40호)
광주이노비스센터 건립 건축설계공모 당선작
(주)유탄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 양병범 건축사



2013년 4월(41호)
전주 도시재생 거점센터 건축설계경기 당선작
(주)길 건축사사무소 이길환 건축사



2013년 5월(42호)
광주 교통회관 건립사업 설계공모 당선작
(주)종합건축사사무소
디자인캠프문바디앰피 김혁 건축사



2013년 6월(43호)
전북 혁신고등학교 신축공사 설계경기 당선작
(주)이가 종합건축사사무소 은동신, 이병철 건축사 +
(주)윌그룹 건축사사무소 김희순, 강문수 건축사



2013년 7월(44호)
대한지적공사 무안군 지사 사옥건립 설계경기 당선작
(주)공간동인 건축사사무소 강필서 건축사



2013년 7월(44호)
섬진강수력발전소 사옥 신축 설계경기 당선작
(주)포유 건축사사무소 박홍근 건축사



2013년 7월(44호)
골고다 기독교미술관 건축설계경기 당선작
(주)그룹포에이 건축사사무소 박동준 건축사



2013년 8월(45호)
5.18 정신계승 민족민주열사 기념관 건립 설계공모 당선작
(주)종합건축사사무소 류기람건축 류연창, 김갑동, 박상구 건축사



2013년 10월(47호)
친환경목장 체험시설 조성사업 건축설계공모 당선작
(주)공간동인 건축사사무소 강필서 건축사



2013년 10월(47호)
마을공동체협력(커뮤니티)센터 설계경기 당선작
제이앤케이 건축사사무소 정영법 건축사



2013년 11월(48호)
봉선1동 주민센터 신축공사 건축설계공모 당선작
(주)에이엠지그룹 건축사사무소 정명철 건축사

2013년 건축문화사랑을 협찬해주신 광고주 및 협찬사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4년 갑오년(甲午年) 새해에는 더욱 건강하시고 하시는 사업 번창하시기를 바랍니다.

- 건축문화사랑 편집위원 일동 -

동일교역(주)
대표 장 철
전라남도 담양군 담양읍 금월리 5번지
T.061)382-0681 F.061)383-6248

반석기초이앤씨(주)
대표 문 형 록
경기도 남양주시 진건읍 배양리 325-1번지 반석빌딩 2층
T.031)577-1673 F.031)577-1674

(주)일우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
대표 안길전, 최보은, 이금신
광주광역시 동구 금동 211-10 코밀빌딩 6층
T.061)373-6920 F.061)375-6920

영무건설
대표 박 재 흥
광주광역시 남구 구성로 130 영무빌딩
T.062)650-9000 F.062)650-9115

조형 스페이스 프레임 코리아(주)
대표 강 현 구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연하로 96 (치평동 4층)
T.062)384-2225 F.062)383-5677

광주건축사협회
이사장 안 길 전
광주광역시 북구 중흥동 694-10 (4층)
T.062)527-8890 F.062)528-0026

(주)에이엠지그룹 건축사사무소
대표/건축사 정 명 철
광주광역시 북구 중흥동 694-10 (1층/2층)
T.062)528-1993 F.062)523-0764

아토파킹
대표 김 태 일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용암북로 160번길 25 (용암동 5층)
T.043)286-3280 / 광주호남문의 : 011-618-2895

법무법인 서석
변호사 윤 춘 주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동 715-2 법조타운 206호
T.062)226-7400 F.062)225-5310

리모델링을 하고 싶은데,아직도 어떠한 자재를 쓸 것인가에 고민하고 계십니까?

건축 내외장재 선도업체 **동일교역**이 해결하겠습니다.



주력제품 : LW PANEL, 라미네이트 패널

저희 동일교역에서는 고밀도 목재패널을 취급하지 않습니다.

LW PANEL를 선택하는 가장 큰 이유는 채도, 명도, 해상도 등 표면의 색감이 고급스럽고 편칭메탈의 문제점인 오염과 평탄성 저하, 변색 등 성능 저하가 거의없으며, 디자인을 더욱 효과적으로 발휘해주며, 항상 새것 같은 느낌입니다.

극한의 환경과 오염에도 변색과 변질없는 내구성과 탁월한 유지 보수성을 지녔고 정교한 평탄성과 디자인성. 마감성이 매우 뛰어납니다. LW는 해외 및 국내 경쟁 사들의 롤모델이며 로망인 제품입니다. 수 많은 경쟁 제품들이 현재도 실험적으로 출시하지만, 탈색과 변질.. 그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젠탱트ARUA PANEL(내부심지에 알루미늄층이 들어간 제품으로 모방과 복제가 불가능한 제품)과 유사하거나 동등 품질을 견줄 만한 제품이.. 아쉽지만.. 아직까지 없습니다.

수입품 조사 이태리, 미국, 한국, 대만, 중국 제품들.. 모두를 비교하여도 2012년 현재까지 젠택스ARUA의 독보적 품질을 능가하지는 못합니다.. 다만, 패널 겉모양은 똑같거나 더 화려한 제품은 많습니다.

검증되지 않는 제품으로 시공을 할경우에 따른 문제점인한 피해가 많기 때문에 “저희 동일교역은 고밀도 목재패널이 아닌 알루미늄심지”가 압축된 젠택스ARUA PANEL 제품입니다.

고밀도 목재패널 하자사진자료(실제사진입니다)

건물 동일부위 1년후의 실제 변색 대비도



▲ 국내생산제품 및 동남아산 제품으로
시공된 목재패널 시공사진입니다.

주력제품 : FBD PANEL

 특징

- 반영구적인 내구성, 내오염성, 내후성
- A급 불연자재이며 유독가스 방출이 없다
- 수분 흡수율이 낮아 자재의 변형 및 변질 없음
- 경량으로 시공이 용이하고 빠르다
- 해안 및 오염지역 등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 리모델링시 타업체 보다 높은 가격 경쟁력

FBD PANEL 규격 : 1200 × 2400 × 8T

기타생산제품 : 인도사암(Sandstone), 라임스톤(Limestone), 대리석/화강석



항상 동일교역을 성원해 주신 고객 및 협력사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시공사례사진



시공사례사진



본사. 물류센터 전라남도 담양군 담양읍 금월리 5번지
Tel. 062-361-6243, 061-382-0681
Fax. 061-383-6248

서울사무소 : Tel. 02-576-5234